

『燕石山房未定藁』와 간본 『石亭集』의 문헌학적 검토

金榮鎮*

I. 서론	수록작 비교
II. 『연석산방미정고』와 이정직의 저술	IV. 석정 이정직 편 시문선집
III. 『연석산방미정고』와 간본 『석정집』	V. 결론

• 국문초록

본고는 이정직(1841~1910)의 시문 자료에 대한 연구로 크게 다음 두 부분으로 나뉜다. 하나는 석정 이정직의 필사본 『연석산방미정고』(후손가장본)와 간본 『석정집』(6권 3책)에 대한 비교이다. 필사본에는 한시 927제 1,279수와 문 273편이 수록되어 있고, 간본 『석정집』에는 한시 512수와 문 123편이 수록되어 있어 필사본에서 간본으로의 선택율은 대략 절반 가량된다. 다만 간본은 ‘잡저’를 전혀 수록하지 않았다. 또 하나는 석정 이정직의 시문, 잡저, 편서 등을 추가 발굴하여 자료의 輯逸 작업을 진행한 것이다. 금번 자료조사 과정 중에 『연석산방미정고』가 현재 통용되는 권질(20책)보다 더 많은 분량(최소 30책 이상)이 있었음을 추정·확인하게 되었고, 그 중 새로 발굴한 고려대 육당문고본(新舊折衷內篇, 外篇)은 석정의 제자 송기면의 『裕齋集』에 잡저 「망언(妄言)」으로 잘못 편입되었다는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였다. 이정직의 잡저 논설들은 송기면의 「망언」 1, 2에 거의 다 수록되었음을 확인하였다(다만 「망언」 1의 가장 마지막 글인 <금일동서> 한편만은 송기면의 글임). 요컨대 향후 석정 이정직의 자료 취집의 필요성이 전면적으로 대두된다 하겠다.

* 성균관대 문과대학 한문학과 부교수

주제어 : 석정 이정직 후손가장본, 『연석산방미정고』, 『석정집』, 고려대 육당문고본
『연석산방미정고』, 『명시산채』, 송기면 「망언(妄言)」의 저자 정정, 석정
자료 취집의 필요성

I. 서론

‘근세 호남3걸’이라는 말이 징표하듯 석정 이정직(1841~1910)은 학문 문학 서화에 출중한 인물이었음에도, 게다가 버젓이 간본으로 정리, 출판된 문집이 있음에도 한국고전번역원의 ‘한국문집총간’(1200여종 500책)에 미수록된 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2001년 김제문화원에서는 『연석산방미정고』의 일반 시문을 번역하여 『석정이정직유고』 전 4책을 내었는바, 이를 통해 이정직 연구가 활성화될 계기가 되었다. 다만, 번역이 누락된 작품들이 있으며 번역의 오류가 꽤 많이 보이고 개별 작품에 대한 정밀한 고증과 충실한 부연 설명이 부족한 점 등의 한계를 보인다. 위의 국역본은 『연석산방미정고』 후손가장본을 저본으로 하고 있으나, 실제 이 자료의 전체 규모는 정확치 않다는 문제가 있다. 국내의 기관 및 개인이 소장한 것이 몇 책 더 확인되는 것이 그 증거이다. 본고에서는 우선 후손가장본 『연석산방미정고』와 간본 『석정집』의 수록작을 대비, 고찰하고 추가·발굴한 이정직 저술들을 소개하고자 한다. 필사본에는 한시 927제 1,279수와 문 273편이 수록되어 있고,¹⁾ 간본 『석정집』에는 한시 512수와 문 123편이 수록되어 있어 필사본에서 간본으로의 선택율은 대략 절반 가량 된다. 다만 간본은 ‘잡저’를 전혀 수록하지 않았다.

본고의 또 하나의 목표는 석정 이정직의 시문, 잡저, 편서 등을 추가 발굴하여 자료의 輯逸 작업을 진행한 것이다. 금번 자료조사 과정 중에 『연석산방미정고』가 현재 통용되는 권질(20책)보다 더 많은 분량(최소 30책 이상)이 있었음을 추정·확인하게 되었고, 그 중 새로 발굴한 고려대 육당문고본(新舊折衷內篇, 外篇)은 석정의 제자 송기면의 『裕齋集』에 잡저 「망언(妄言)」1, 2로 잘못 편입되었다는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였다. (다만, 「망언」 1의 가장 마지막 글인 <금일동서> 한편만은 송기면의 글임). 요컨대 향후 석정 이정직의 자료 회집의 필요성이 전면적으로 대두된다 하겠다.

본고에서는 필사본 『연석산방미정고』 현황, 문제점, 추가 발굴 등을 우선 정리하고, 이 필사본과 간본 『석정집』 수록작을 비교·검토하고자 한다. 석정 이정직 자료

1) 『석정이정직유고』(김제문화원), 최영성 해제.

의 면밀한 검토와 체계적 정리를 통하여 최종적으로는 석정의 문학과 학술에 대한 위상을 재정립하는데로 나아가고자한다.

Ⅱ. 『연석산방미정고』와 이정직의 저술

이정직의 초·중년 저술은 널리 알려진 대로 1894년 갑오동학농민운동 때에 전주에 있던 거처가 전소되면서 모두 사라졌다. 그리하여 현존 저작들은 그 이후, 즉 1894년부터 1910년 졸하기 까지의 만년 17년 동안의 저술이다. 갑오년 직후의 작품들은 『燒餘錄』으로 묶었고 만년에 다시 『연석산방미정고』로 정리하였다. ‘연석산방미정고’라는 표제에서 알 수 있듯이 완전하게 정리되지 못한 상태였다. 제자 송기면은 『연석산방고』가 30책이라 하였고 이 가운데 일반 시문만을 뽑아 1923년 『석정집』 연활자본 6권 3책을 간행하였다. 현재 후손가장본 『연석산방미정고』는 20책만이 남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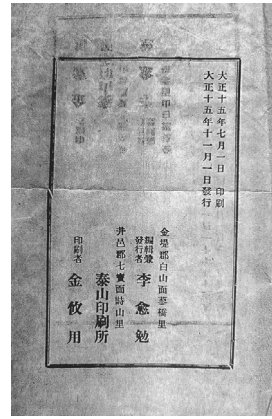
〈그림 1〉 『연석산방미정고』(후손가장본)



〈그림 2〉 『연석산방미정고』 표지 (연세대장본)



〈그림 3〉 간본 『석정집』 표지



〈그림 4〉 간본 『석정집』 판권지

연세대에는 또 다른 한 세트로 추정되는 『연석산방미정고』 영본 1책인 ‘찰한소품’(‘찰한소품’은 ‘한훤소품’의 이칭)이 소장되어 있는데, 표지 우측 하단에 ‘共畚文十四’라고 적혀 있어 문 14책 중에 한 책임을 알 수 있다.

송기면이 『석정집』을 간행하기 직전인 1922년 정월에 쓴 「이정직선생행록」(『유재집』 권6 행장)에는 『연석산방고』 30책과 기타 저술 20종이 있다고 하였다. 박철상은 『연석산방미정고』를 시고, 문고, 별고, 별집으로 분류하였는데,²⁾ 애초 이정직의 분류 자체가 별집과 별고의 구분이 모호하다. 필자는 별고를 논설형 잡지와 한훤소품 같은 이정직 본인의 단행저술로 나누고, 별집은 일반 시문이 아닌 별도의 단행권, 즉 어떤 텍스트에 대한 이정직의 연구 또는 주해서로 본다. 송기면이 말한 『연석산방고』 30책을 필자는 시고 5책, 문고 14책, 별고 10~11책(추정) 이렇게 도합 30책으로 파악한다. 단행권인 별집은 대략 10책으로 본다.

‘시고’ 5책은 1894년 작부터 1910년 작까지 한 해도 거르지 않고 온전히 실려 있는 것으로 보아 산실된 권이 없는 것 같다. 이정직 사후 그 시의 산정은 창강 김택영이 했다고 알려져 있다. ‘문’에 대해서는 필자는 연세대본에 적혀 있는 ‘共畚文十四’라는 말을 준신한다. 현존본으로 보자면 3~4책 정도는 일실된 것으로 파악한다. ‘별고’는 약 11책으로 추정하는데 이에는 「한훤소품」 같은 단행 저술 및 「구범신론」

2) 박철상, 「석정 이정직의 생애와 교유」, 석정 이정직 서거 110주기 학술대회 발표집, 2020.

「신구절충」 같은 잡저가 포함된다. 이상의 분류를 도표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표 1〉 이정직 『연석산방미정고』 총목

연번	분류	燕石山房未定詩稿		
		표제	권수제	비고
1	시고	燕石山房未定詩草一	燒餘錄 卷之一	
2	시고	燕石山房未定詩藁第二	燕石山房未定詩藁第二	
3	시고	燕石山房未定詩藁第三	燕石山房未定詩藁	
4	시고	燕石山房未定詩藁第四	燕石山房未定詩藁	
5	시고	燕石山房未定詩藁第五	燕石山房未定詩藁第五	
1	문고	燒餘錄	巽遊錄	‘석정’인
2	문고	燕石山房未定文藁一	燒餘錄一	燒餘錄, 與鄭鶴山書
3	문고	燕石山房未定文藁二	없음	유자박이과요변, 한문제불상두광국설
4	문고	燕石山房未定文藁第三	燕石山房未定文藁	복산화음론-학산, 왕패론상
5	문고	燕石山房未定文藁第四	文藁第四	옥호재기, 학남재기
6	문고	燕石山房未定文藁第五	燕石山房未定文藁	송이금석서, 경수석정선생육십일수서-금석
7	문고	燕石山房未定文藁第六	燕石山房文藁	유유불보금(중략), 황매천오십수서
8	문고	燕石山房未定文藁第七	燕石山房未定文藁	문변, 원식
9	문고	燕石山房未定文藁第八	燕石山房未定文藁八	훈정기, 소천재기
10	문고	燕石山房未定文藁第五		寒暄小品, 사
11	문고	傳家錄	『燕石山房未定文藁內集』, 「傳家錄」	
1	별고	燕石山房未定藁 別集	研經山房未定藁, 燕石山房未定藁	
2	별고	舊範新論	燕石山房別集未定文藁	고려대 육당 갑본
3	별고	舊範新論	燕石山房別集未定文藁	고려대 육당 을본 ³⁾
4	별고	燕石山房未定文藁別篇後篇	燕石山房未定文藁別篇後篇 (「康氏哲學說大略」)	(박종홍 논문)
5	별고	燕石山房未定文藁別集一	新舊折衷末篇(<倍根學說>, <詩經日課>)	

〈표 2〉 이정직 기타 저술 (별집)목록

연번	분류	燕石山房未定詩稿		
		표제	권수제	비고
1	별집	詩經註解		
2	별집	算學傳授		
3	별집	詩學證解		
4	별집	刊誤精選		
5	별집	字音考		
6	별집	轉辭譯譯		이전창, 이기 文
7	별집	蘇詩註選		
8	별집	星曆		

위 <표 1>과 <표 2>는 후손가장본 『연석산방미정고』에 기타 단행 저술(즉, 별집)들을 도표화 한 것이고, 굵은색으로 되어 있는 것은 필자가 추가한 것이다. 송기면은 『연석산방고』 30책이라고 했기에 필자는 이중 5,6책 정도가 일실된 것으로 본다.

송기면은 『석정집』을 간행하면서 <표 3>의 굵은 글씨에 밑줄로 표시한 논설류 잡저들을 수록하지 않았는데, 이 자료들은 매우 중요하다. 1973년 박종홍에 의해 조선 최초의 칸트 수용자로 대서특필된 이정직의 「康氏(칸트)哲學說大略」이 『연석산방미정문고』 별편 후편에 수록되었다고 하는데 현재 이 자료의 소재는 알 수가 없다.⁴⁾ 총 128면이라고 한 것으로 보아 필사본 1책 64장본이고 『강씨철학설대략』 외에 다른 글들도 수록되었으리라 추정된다. 후편이라고 한 것으로 보아 전편도 있었을 것이고, 후손가장본에는 「倍根學說」이 『신구절충말편』에 수록되어 있는바 전편, 후편, 말편은 『신구절충』의 전편, 후편 말편으로 보인다. 고려대 육당문고에는 『연석산방미정고-별집』이 있는데 자료 내용상의 중요도는 물론이고 이 글들이 송기면의 『유

3) 도표의 육당을본 新舊折衷內篇(原君號, 原民號, 論義利, 論經權, 論強弱, 論文武, 論貧富, 論生殺, 論是非, 論勇怯, 論成敗, 論盛衰, 論公私), 新舊折衷外篇(論變法 上, 論變法 中, 論變法 下, 論興學)이 실렸고 이와 별도로 獨觀其大略論, 集衆思論, 宰天下說이 실려 있다. 이를 통해 기존에 알려졌던 新舊折衷末篇은 이 연작의 마지막 한 작품이었음이 확인되었다.

4) 전언에 의하면 김영호 교수(前경북대, 유한대학 학장)가 연석산방고 일부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혹 이 책일 가능성이 있다. 박종홍은 양계초가 칸트의 철학을 불교의 화엄사상과 연결지어 설명한데 비해 이정직은 유학사상을 연결지어 설명한 것이 독자적이라고 평가하였다.

재집』 「망언」에 그대로 실려 있어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도표로 먼저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표 3〉 『연석산방미정고』 「신구절충」과 『유재집』 「망언」 수록작 비교

『연석산방미정고』	『유재집』
新舊折衷內篇 原君號, 原民號, 論義利, 論經權, 論強弱, 論文武, 論貧富, 論生殺, 論是非, 論勇怯, 論成敗, 論盛衰, 論公私	妄言 一 君民, 義利, 經權, 強弱, 文武, 貧富, 生殺, 是非, 勇怯, 成敗, 盛衰, 公私, 勵專業, 持忍力, 導智源, 集群思,⁵⁾ 變法上, 變法下,⁶⁾ 今日東西
新舊折衷外篇 論變法上, 論變法中, 論變法下, 論興學 (이상 육당 갑본 및 을본), 論新民(육당 을본에만 수록)	妄言 二
燕石山房文藁 獨觀其大略論, 集衆思論, 宰天下說 (육당 갑본에만 수록)	

간본 『석정집』에는 일반 시문만이 수록되었고 잡저는 수록하지 않았다. 별집⁷⁾으로 명명된 구범신론(=신구절충)을 수록하지 않았는데, 석정의 사상 및 독서 범위를 보여주는 매우 중요한 잡저이다. 이 중요 잡저가 그간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을 뿐더러 제자 송기면(1882~1956)의 『유재집』 권3 「망언」으로 실렸다는 점이다.

『유재집』은 1959년에 석인본 6권 4책으로 간행(『유재집부록』 1책 별도)되었는데, 권3 잡저 「망언」은 석정 이정직의 글이 잘못 편입된 것이다. 이제 「구범신론」(신구절충)의 내용과 「망언」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비교, 검토한다.

5) 송기면의 「勵專業」, 「持忍力」, 「導智源」, 「集群思」은 이정직의 「論興學」을 나누어 수록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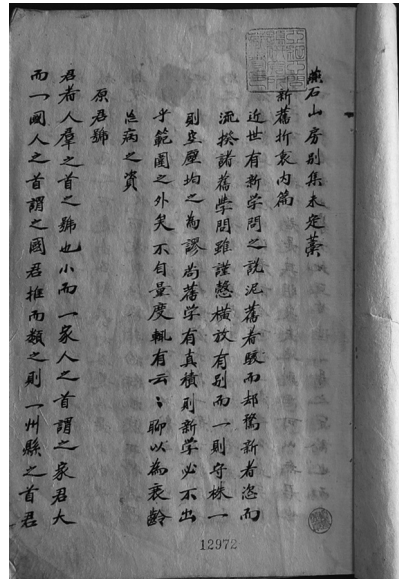
6) 송기면의 「變法上」, 「變法下」는 각각 이정직 「論變法上」, 「論變法中」을 초록한 것이고, 「論變法下」는 수록하지 않았다.

7) 필자의 분류로는 이를 별집이 아닌 별고로 본다.

『燕石山房未定藁』와 간본 『石亭集』의 문헌학적 검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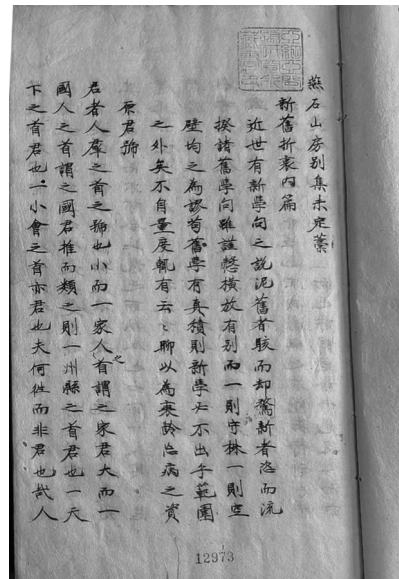
〈그림 5〉 육당문고 갑본(고려대)



〈그림 6〉육당문고 갑본 「구범신론」



〈그림 7〉육당문고 을본(고려대)



〈그림 8〉육당문고 을본 「구범신론」

육당문고 갑본의 수록작은 위와 같고 육당문고 을본의 수록작은 여기에 「論新民」⁸⁾이 추가로 실려 있다. 「논신민」은 입헌군주제와 공화정 등의 정치제도를 비판하였는데, 양계초의 언급을 다수 인용하였다.

양계초의 『응빙실집』은 1902년에 상해 광지서국에서 처음 간행되었고, 1905년에는 일본 동경과 상해의 광지서국에서 다시 간행이 되었는데, 우리나라의 지식인들은 이 책이 간행됨과 동시에 열독하고 수용하였다.⁹⁾ 석정 이정직도 이 책을 열람하였는데, 1902년 본인지 1905년 본인지는 알 수 없으나 이 두 판본 중 하나를 본 것은 분명하다.

한편 『유재집』 「망언」에 들어 있는 「금일동서」는 현존 『연석산방고』에 보이지 않는데 독일, 일본의 2차 대전 패망 이후의 상황이 나와 있으므로 이 글 하나만은 송기면의 글이라 하겠다. 이정직의 글이 「망언」에 수록된 것은 송기면이 스승 이정직의 잡저를 한 부 베껴놓고 그 뒤에 본인의 「금일동서」를 필사해 놓은 것을 송기면 사후 문집 편찬 과정에서 제자들이 송기면의 글로 오해를 해서 발생한 문제로 보인다.

「신구절충내편」의 서두를 잠시 보인다.

근세에 새로운 학문의 학설이 있는데 옛것에 얽매인 사람들은 놀라서 물러나고, 새것에 달려 나가는 자들은 방자하게 따른다. 옛 학문과 비교해 보면 비록 심중하고 방만한 차이는 있지만 하나는 그루터기를 지키는 꼴이고 하나는 성을 비우는 것이니, 모두 잘못되었다. 만일 옛 학문에서 참으로 쌓은 것이 있다면 새 학문은 반드시 이 범위 밖을 벗어나지 않을 것이다. 이는 제 분수를 모르고 문득 이런 말을 한 것이니 그저 늙은 나이에 병을 잇는 자로 삼으려 한다.¹⁰⁾

8) 이정직이 之言 혹은 說者曰로 표현한 것을 송기면은 망언에서 ‘양계초왈’ 고쳐져 있는 부분도 있다.

9) 양계초(1873~1929)의 응빙실문집은 처음에 1902년에 편년체로 상해 광지서국에서 출판되었다. 1905년에 일본 금향당에서 문체별로 편집되어 간행되었고 같은 해에 광지서국에서 또한 문체별로 간행하였다. 1915년 중화서국에서 문체별로 편집하여 간행하였고, 1916년 상무인서관에서 신민설과 덕유경 등 모두 13종의 글을 모아서 총저라는 책을 간행하였다.

10) 고려대 육당문고본, 제 1면, “近世有新學問之說, 泥舊者駭而却, 驚新者恣而流. 揆諸舊學問, 雖謹愨橫放有別, 而一則守株, 一則空壁, 均之爲謬. 苟舊學有真積, 則新學必不出乎範圍之外矣. 不自量度, 輒有云云, 聊以爲衰齡忘病之資.”

한편 「망언」의 서두에도 간략한 범례에 해당하는 글이 있는데 당연히 이정직이 쓴 것이다. 초학자들에게 동서고금의 상황을 쉽게 설명하기 위해 어조사를 많이 쓴 순조로운 문체로 의도적으로 글을 썼고, 난해함을 주지 않기 위해 육경 같은 경전의 구절을 거의 인용하지 않았음을 밝히고 있다.

나는 이 글을 쓰면서 일찍이 선현의 경전을 인용하지 않았으며 어조사를 많이 사용하였다. 그리고 삭제해야 할 부분을 삭제하지 않은 것은 처음 배워나가는, 나이 어린 사람들이 이 글을 읽는 데 어렵거나 생경(生硬)하거나 난삽(難澁)한 어려움을 없애주기 위함이다.¹¹⁾

이상으로 『연석산방미정고』의 시고, 문고, 별고의 대강을 정리·소개하였다. 이외에 별집이라 할 이정직의 단행저술들은 역시 <표 2>에 제시하였다. 별고와 별편의 분류도 이정직 본인조차 명료치 않아 보인다. 별집은 독립된 단독 저술로 보아야 할 것이다. 다만, 송기면이 언급하지 않은 자료들도 더 있어서 추가 발굴에 힘을 써야 할 것이다. 문제는 그것이 이정직의 저술(해설)인지, 아니면 필사 내지 선집에 해당하는 것도 여러 종이 있고 이 역시 이정직의 문학 및 사상에 밀접한 관련성이 있기에 본고 사장에서 다시 추가 소개하고자 한다.

Ⅲ. 『연석산방미정고』와 간본 『석정집』 수록 시문 비교

앞서도 언급하였지만 『연석산방미정고』는 이정직 본인이 만들어 놓은 자료이고 그의 사후 제자 송기면이 1923년 『석정집』으로 간행하였다. 필사본에는 한시 927제 1,279수와 문 273편이 수록되어 있고, 간본 『석정집』에는 한시 512수와 문 123편이 수록되어 있어 필사본에서 간본으로의 선택율은 대략 절반 가량된다.¹²⁾

11) 余於此作，未嘗引先典，而多用語助字，可刪而不刪，蓋爲新進年少人之讀之無難澁之苦也。

12) 최영성은 국역 연석산방집 해제를 통해 필사본과 간본의 상황에 대해 논하기는 하였으나 간본에 刪選된 작품과 그 의미에 대한 고구까지 나가지는 못하였다. 본고는 이를 정리하고 의미 분석을 시도하는 것이 제1 목표이다. 필사본의 한시 927제 1,279수인데 간본(『석정집』)에는 512수가

「석정산방기」(후손가장본)를 쓴 집안사람(종인) 아무개는 갑오년 이전의 석정 저술들을 대부분 본 것으로 추정되지만 갑오농민운동 때 모두 전소되었고 그 이후의 저작을 석정이 만들어 놓은 『연석산방미정고』가 있는데, 이중 시는 창강 김택영의 選刪을 거쳐 간본 『석정집』의 시로 수록되었다. 『석정집』이 간행되기 전에 장지연(1864~1921)의 『이석정시문초』(영남대 소장, 필사본 1책) 등의 필사본이 유통되기도 하였다.

『연석산방미정고』와 간본 『석정집』의 수록 작품을 표로 제시하여 그 차이를 비교자 한다. (지면 관계상 시 부분은 『석정집』의 목차를 생략한다.)

〈표 4〉 『연석산방미정고』와 『석정집』 수록 작품 비교표 (시)

필사본에만 실린 작품은 다음 표에서 굵은 글씨로 하였고, 일반 글씨체는 간본 『석정집』에도 뽑힌 시들이다. 『석정집』 시제와 차이가 있는 것은 *을 추가하였다.

『연석산방미정고』	
詩藁 一 鶯鶯賦	【附】雲樵의 詩
	【附】松巖의 詩
	【附】內人의 詩
有感 甲午	賦雪疊前韻 并十首
拈杜送客二韻	雲樵有事遽還 故疊前韻賦雪寄意
拈杜對雪韻	宿可山 拈杜曲江韻 與鶴山共賦
有歎	【附】鶴山の 詩
卽景	林雲樵以詩見別 卽席和之
拈杜舍弟占歸艸堂韻	【附】雲樵의 詩
種竹次杜答岑補闕韻	蘇溪見顧 拈丁卯集得君字
堂北鋤荒次杜酬孟雲卿韻	拈韻得堂字
安休齋末石泉至共拈青字	可山拈生字贈鶴山
復用前韻	德川書室拈寒字
三疊前韻	【附】樸夫의 詩
課童拾穗	拈杜示阿段韻
觀種荳	【附】樸夫의 詩
擬古	宋章江石泉從弟也 文性穎慧 又能不點輟讀
觀稼	喜其將有大就
*弧辰	
路中	拈劉隨州酬屈突陝韻
觀漲	寒村卽景 拈劉隨州夕望岳陽韻
	除夕拈錢牧齋除夕韻

실렸고, 문은 필사본에 273편인데 간본에는 123편을 수록했다. 필사본에서 간본으로의 선택율은 대략 절반 가량된다. 다만 간본은 ‘잡지’를 전혀 채택하지 않은 한계가 있다.

題三可亭 行邁 晚晴戲效孟嘉陽 紫薇花盛開 夕坐 即景 抵曉不寐 酒風 憑檻 孤吟 完山山下有草亭 亭北有竹數十根 居人編之 金瓶下安兩床 蕭酒可喜 有懷 涼生 聞人言有警贈鄭鶴山 曉起 獨題 布袂 還蓼村第與隣友共賦 有歎 夜步溪上 九日 登南固山城次圃隱先生韻 過雙江浦 繡白 行役 聞報 田家 簡金郎惺夫 簡惺夫 翌日復簡 乙未元日 簡惺夫-乙未 杖策 賦雲 見大雪封竹有賦 正月三日漫題 示兒輩 懷惺夫 簡鄭鶴山五首 安休齋至拈杜客舊館韻 是日又拈杜屏迹韻 寥橋田家詩 宋石泉安休齋至拈杜贈田舍人韻	元日書懷-己亥 崔蘭石鎮宇夜話得新字 【附】蘭石의 詩 人日得年字 上元留完上得陽字 連日細雨 松石見訪于城北旅所 時晨月滿窓 松石書室 渭樵秋塘 至自咸陽南原 對晤竟日 松石書室同澹園共賦 其二書呈澹園 聞松石與澹園 共賦時字 步其韻以自遣 七月十七夜 移床東庭有賦 杏亭餞春 訥人自鎮安迂路見訪 遣興三首 拈王右丞和韋主簿韻 與金蒼臯共賦示梅下 哭金惺夫 與金秋潭向安和路中口占 安和訪申南沙不遇 社洞與金梅史李耕人金蘭坡金石湖共賦 李玉樵公集 與余深結文字之契 不幸去年天逝 聞之悲甚 屢欲過弔其孤 而念其親難抑西河之慟 殊不忍見 徘徊久之 乃於今夏始過其家 見其次子秉龍 年方十四 足紹乃考之美 不覺悲歡交集 書贈一詩 余贈秉龍詩 將發 聞其兄秉珪 才氣穎發 可謂難兄難弟 而余却交臂失之 更步前韻贈之 南沙見願得嘔字 拈成南坡詩集韻 得天字 自杏社擬發 南沙以詩見贈 次其韻酬之 【附】藁雲의 詩 金郎梧軒回甲宴 和原韻 余比年作詩 概多平淡 家兒及從遊年少欲效之 余謂習於奇者 可以言平 飮於濃者 可以知淡 若躡等求之 易成空架 爲是之憂 乃時時作纖膩語 與之唱酬 時自杏亭還家數日後也 得還字 拈得歸字 復得斜字并賦 【附】石泉의 詩 【附】奎輿의 詩 拈得蒼字 登斗岳 口呼得青字 【附】石泉의 詩
--	---

宋石泉至拈杜題省壁韻
上元日宋石泉安休齋至拈杜騰王亭子韻
宋石泉至并邀安休齋 拈杜藍田崔氏庄韻
春雨
雪中閒坐
聞禱神鼓
雨霰交下
土人種冬青連株作障謂翠屏
雨霽
杖策
晚步
喜白鬚
 見人製丸藥有賦
 老大勝年少
與梁晴史子潤 訪趙上舍不遇 登其家西小岡
與梁晴史過碧城爲雨所滯
 過院坪
野望
榜賀峙午憩手竹垞集暫睡
過鍾山見水頭有石可坐數人
過龍江村
宿繡舫村
 過蘆山峙
安和崔梧亭書室申南沙李耕人李羣雲李錦石至梁
晴史亦與焉

是夜拈明字
申南沙詩云 當世文章身遽老 一番風雨夢初飛
蓋謂余也

 申和而南沙之季方也 其詩云 仙家聞犬詩遺響
 竹館聽琴畫有聲

李耕人題聯云 滄江虹月八山屏 尾聯云
落拓人才世所稀

李羣雲詩云 花逢寒食偏多雨 家住青山不用屣
申南沙李羣雲龍城之行 爲余迂路之新亭
 途中見僧背橐而行
憩路邊池上
磚石峭
橋頭別申南沙李羣雲
梁南坡書室同李玉樵及子潤拈然字
鰲山書室拈舟字示梁晴史子潤

秋雨漲甚 晚霽野望
 贈君章
金石庵雅有文藝之性 亦既工於時文
余賞勸之爲古詩文 適又來顧 拈州字贈之

苕溪自年前 有風火之疾 翠亭於今春
經天行之病 而久未相見 乃者二人聯筇來顧
見其顏色 尚蕉顚 留一日欲歸 賦此絳懷
冀其更留

白坡屢貽書見邀而未赴 與蘇溪同行散懷
因抵岱山 卽白坡所居里也 索紙書路中口占詩

用前韻復題
夜得明字 與白坡共賦
自龍洞將還蓼村 未發而休溪聞余在此 惠然來尋
且言琴隱在可僦所 遂期會于南愚書室 湖亭亦至
拈韻達曉

競韓都事
自可山向龍潭路中口占
 松石書室晤淡園訥人渭樵雲田
重陽適又家居 而籬菊未開 夜月極明
松石書室 晤澗園白峯渭樵 翌日約向舟山
 自高棧發 行至豆川宿 翌日與蘇溪登八峯山
宋春軒回甲次其韻
和李羣山
【附】羣山の 詩
古意呈蓮又
向舟村路中口占
又占一絕
夜步小軒
拈杜登樓詩韻 賦訥人席上
【附】訥人の 詩
 拈陳簡齋送客出城西詩韻 因效江西體
拈黃山谷自巴陵至黃龍詩韻遺懷
 拈劔南齋壁韻 戲效其體 題訥人壁上
拈香山答客問杭州詩韻
效西崑體得清字
蘇雲樵來訥人席上 共拈丁卯集得霜字
效韋蘇州得亭字
 拈劔南集得樓字 却效柳柳州
松石有約不至 拈得宵字 仍效前體
得波字 題社中壁
 恭過乾止山
次呈白坡宗座

贈李玉樵
復用前韻
用前韻懷梁南坡
宿星峙樓題
宿星峙拈江字
店臥
路上拈腔字
觀人下麻子
見岩腰有水道

過龍淵
午後拈孤字
舟時潯雨
枕木津口占
萬壽洞荷安室黃梅泉外塾也 與許卯園吳琴軒拈
劍南集春行韻 李玉樵梁晴史亦與焉

時黃梅泉居禪戒吟翌日拈源字

翌日拈尋字

翌日登飯峯

翌日拈潯字

午發萬壽洞

土金書齋拈堂字

沙灘路中(국역본에 누락)

登龍臺(국역본에 누락)

自冷泉入華嚴寺(국역본에 누락)

華嚴寺同王小川李海鶴許卯園李玉樵李白邨吳琴

軒梁晴史拈尾字時土金諸少年亦至(국역본에 누락)

又拈廻字(국역본에 누락)

王小川名師瓊字瓊之開城人丙午生居土金

李海鶴名沂字伯曾固域城人戊申生居冷泉

許卯園名奎字星五陽川人辛酉生居萬壽洞

李玉樵名麟會字公執廣州人癸亥生居南原玉山

梁晴史名在鑾字子潤南原人辛未生居南原鰲山

李白邨名秉浩字善吾全州人庚午生居萬壽洞

吳琴軒名秉淵字光國寶城人辛未生居萬壽洞

黃秀才名鍊九時方總州故無詩號長水人梅泉子庚

辰生

朴錦波名元甲字□□咸陽人丙子生居冷泉

金五峯名千洙字□□金寧人己卯生居土金

金芝園名永煥字元明光山人庚午生居土金

李秀才名樂祖時方總州故無詩號海鶴子庚辰生

金荷田名秉權字道三金寧人乙亥生居土金

朴西岑名準謙字元益密陽人乙亥生居白蓮洞

聞李翠亭大奎駕海舶購書于京師 喜而有賦

夜作書戲賦

長至日甲子聊自述

憶霞洲爲古體

余年少爲詩 頗多詠物 輒喜押險韻

而垂老則蓋廢矣 今年夏 在杏社時 申南沙見訪

勸余爲畫虎詩甚堅 不得已應之

而韻險故不爲登藁 近有人來誦人詠筆詩

韻殊不易 余又戲賦 爲賦筆也 遂不刪

既以詠筆登藁 不必獨刪畫虎詩 仍追書之

聊博自祭

復戲押筆韻 示同志少年

芸泉上舍贈羊毫筆一枝 管上刻道光二年

雖非製造人所刻 的是舊物 而毫理甚精

近時實所未睹 惜絛線稍鬆 毫漸流脫 遂更裝束

賦詩記之

除日書懷

元日庚子

憶鳳城遊七十二韻

鶴山寄其和余詩二頁 讀之咄咄逼人

其畫虎詩第三聯 尤覺其用筆之妙 空中着色

神氣充滿乃賦十韻 以紀絕歎之意

且勸其益加努力云

【附】右畫虎

【附】右賦筆

余至梧山之日 霞洲鶴南亦至 喜而有賦

拈李江陰詩得期字

【附】霞洲의 詩

山行口占

羅是村晤崔箕亭 同往書齋 得遙字

【附】箕亭의 詩

復以前韻贈箕亭

【附】箕亭의 詩

自古縣村 復到羅是 留宿于崔是隱庄

箕亭與姜美山崔錦圃俱會 得青字

【附】箕亭의 詩

【附】美山의 詩

自蓮池冒雨 抵大石村 得筵字

【附】是隱의 詩

留大石 見任野槐携詩而至 是隱中酒而臥

是日又拈杜藤王亭子韻

【附】海鶴의 詩

【附】小川의 詩

【附】小川의 詩

自華嚴下來道中拈涼字

冷泉書室與李海鶴王小川共賦

翌日壽洞土金冷泉諸年少 又集冷泉書室

是時余方吟病強起共賦

用前韻題海鶴書室

拈來字呈海鶴兼贈諸年少

道中拈松字口呼

過川邊復用前韻

烟波江少憩三臺前韻

訪林山人四疊前韻

錦城時店走筆簡黃梅泉

李白邨依依不忍別 隨余至錦城時店同宿

翌日以絕句二首送之

鰲山別李玉樵

【附】玉樵의 詩

【附】晴史의 詩

智山書室有賦

拈劔南集屢字

又拈長字

留鰲山簡朴智山

安和書齋與申南沙和 而金梅史李畢雲梁晴史

共賦拈乾字

又拈濃字

玉山書齋 與申南沙金梅史李耕人

李畢雲梁晴史共賦 次杜將赴草堂韻

其一爲玉樵作

又拈西字

贈別南沙梅史耕人輩雲玉樵次杜可惜韻

與梁晴史路中 口占次杜晝眠韻

其五 鵝榜賀時

其六 賦懷

加餐

呈惺夫

樹陰

野行

賞石堤池荷花

賞荷絕句十二首

賞荷長句

得西字

任野槐見顧于羅是 值余理裝而發 匆匆不暇晤言

翌日余抵大石 野槐又至 以詩見示

即次余遙字韻也 附書于左

與郭一山有舊 而是行匆匆未及訪 以詩代簡

聊寄悵然之懷云

抵大東里 訪吳桂南于授徒之所 夜得生字

【附】桂南의 詩

前石岬堂席上得中字 箕亭亦適到

【附】岬堂의 詩

【附】箕亭의 詩

次是隱幽居韻

蟹橋道中

新店月夜

山行

記所見

社村書齋得東字

金梅史兩度見訪於杏亭旅所

金上舍在疇 要余書其阡表 匆卒未及副 久之

聞其自書 作三絕句 謝不敏

青山重疊白雲興

店舍曉坐

權滄浪見顧數日 論文才氣峭發 勇於直前

慮有妨於含養 馳向旁路

臨別拈門字共賦 微有所勸云

四絕句

三絕句

初秋雨晴遠眺

夜坐

申南沙和 而金梅史李畢雲諸詞伯 聯袂而來

尋和而畢雲去 獨梅史止宿於南沙 旅棲之所

夜月殊好 拈醒字共賦

【附】南沙의 詩

【附】梅史의 詩

明國至 君章亦來 拈小倉山集別眼鏡詩韻共賦

余嘗勸崔箕亭努力立言 圖所以不朽

箕亭病未嘗博涉群書 年且衰邁

余則謂箕亭自小小攻時文 浸淫典籍 旁通諸家

不爲不博 才性穎脫沈確 變無難也 日者

箕亭爲長書遺余 復理前言

拈牧齋集得時字

宋松栢至拈杜藍田崔氏莊韻

懷惺夫

懷鶴山

過舊平皇訪黃石友時 尹夏亭黃桐雲在坐

同拈饒字

懷錦樵

涼風五章 懷春岡

宿德川

自全州還

金碧樵趙悅雲趙韶堂見訪 拈杜題省中壁韻

時李白坡末石下亦至

復拈生字

皎月五章 懷梁南坡

民生六章 懷李海鶴

我行五章 懷黃梅泉

與鄭鶴山梁晴史 共拈纖字

愴悌五章 懷王小川

君子有交五章 懷許卯園

德不孤五章 懷李玉樵

凡九章 贈李白村

和風五章 懷吳翠軒

載逢載別辭 懷黃石田

豐秀五章 贈黃秀才鍊九

懷彼愴悌五章 懷李秀才樂祖

獨行五章 懷梁晴史

止宿趙碧霞藥軒 拈杜暮春韻

與鶴山曉坐等 拈韻得藥字

【附】鶴山の 詩

與鶴山復拈煖字

鷄卵三十韻

鄭瀛坡洛源回甲日要余詩

次兒奎興 近作七字句 不覺失笑 以其韻記即事

【附】奎興의 詩

病起拈杜赤甲韻 丙申

閱書篋見鄭鶴山手書五言古詩 錄余詩卷

因次其韻贈鶴山

【附】鶴山の 詩

三月二日拈杜曲江對雨韻

上巳拈杜又送辛員外韻

三月望夜拈杜藍田崔氏莊韻

末石泉至 拈杜曲江韻

余步其五言古詩二十二韻 爲長律以釋其疑

蓋欲與之切磋云

【附】筭亭의 詩

除日次駱丞西京守歲韻

元日書事 辛丑

客歲宗人明國 言權蕙山詞伯惠然肯顧

適值余旅泊 致孤盛意 不覺瞿然之甚

乃於元正述五百字 要明國轉呈 以謝不敏

蠅堂爲其伯氏都事錦下先生回甲之辰 賦詩祝壽

索不佞和之

明國至 邀君章拈劉隨州賦得韻 共賦示家兒

和梅泉五古十首

【附】梅泉의 詩

和小川七律四首

【附】小川의 詩

和白村古詩

【附】白村의 詩

和石田七律二首

【附】石田의 詩

和高生石門五古十首

【附】石門의 詩

又次簡字韻

【附】石門의 詩

追賀白村伯尊甫斗山大兄回甲宴五首

詩藁四

與白村拈劉隨州集得城字

【附】白村의 詩

【附】石泉의 詩

【附】梧岡의 詩

【附】奎興의 詩

【附】秋江의 詩

【附】竹初의 詩

和白村八絕句

【附】白村의 詩 8首

拈坡富菴 以五言長句 祝余六十一歲

【附】白坡의 五言長句

舊村與石友桐雲逸堂共賦

莫史詞伯 杞泉學士 闔韻賦春雨 戲追步和之

又步錢春聯句

【附】鶴山の 詩

與莫史賦鶯得綠字

【附】石泉의 詩
錢春日拈杜晚晴韻
琅玕辭 懷梁晴史
 間居
梁晴史自邊山來共賦
 示盧生
擬古贈梁晴史
擬古

詩藁二
松村夜話
【附】惺夫의 詩
【附】鶴山의 詩
翌夜與鄭鶴山 拈杜和賈至早朝韻
【附】鶴山의 詩
 待雨
翌日拈杜倦夜韻
【附】惺夫의 詩
【附】鶴山의 詩
 有思
 有雨
與金惺夫金蕙史鄭鶴山拈增字
【附】惺夫의 詩
【附】蕙史의 詩
【附】鶴山의 詩
復用前韻記喜雨
與惺夫蕙史鶴山拈杜畫夢韻
【附】惺夫의 詩
【附】蕙史의 詩
【附】鶴山의 詩
與鶴山拈杜十二月一日韻
【附】鶴山의 詩
 即事
與楊山拈杜示獠奴阿段韻
【附】鶴山의 詩
觀春米
晝陰
 題畫十二首
【附】鶴山의 詩
與鶴山拈杜戲簡崔評事弟韻
【附】鶴山의 詩
積雨聯句闡微韻三十字
拈李義山詩集微字韻
與鶴山晴史拈杜返照韻

蕙史以述懷詩見示 余亦漫賦
 賦薰得流字
再賦
 觀園基
杞泉書室 晤汕僉詞宗 有詩索和率易應之
 再賦
 讀汕僉詩用前韻賦呈
 與處仁君章閒行得遲字賦二首
【附】蘇溪의 詩
【附】秋江의 詩
【附】石泉의 詩
 木溪店贈別白村
 自全州堤內抵府城 步訥人拗體七絕韻二首
【附】訥人의 詩 二首
德津記俗風二首
 待雨得知字
 嶠堂貽書約會于興福寺其書曰一爲壽石一爲賀雨已而携廚具而來盛意何敢讓也拈韻得新字記之時蕉史桂南箕亭共會尋碧潭亦至詩僧慧明同忝焉

 與桂南箕亭聯筇至水閣 簡休溪 會晤藕亭亦至得深字 詩未就 而箕亭徑還 不勝悵缺

姜美山見訪得林字
和李上舍醒湖 壽余六十一詩
【附】醒湖의 詩
 和金閒舟壽余詩
【附】閒舟의 詩
 和李松巖壽余詩
【附】松巖의 詩 七首
 和金藕亭見贈詩二首
【附】藕亭의 詩 二首
向時與藕亭拈深字唱酬 其後藕亭復以前韻見贈 而白坡有和詩風調較前更進賦此呈之

【附】白坡의 詩
次養麗齋壁上詩
 杜陵崔錦園見顧 拈得遲字
仍步前韻順呈箕亭
【附】錦園의 詩
 七義閣
【附】梅泉의 詩
【附】柳二山의 詩
【附】小川의 詩

雨中有懷納人 次鶴山溪字韻 <u>拈杜酬郭十五韻</u> <u>舟山書室拈杜夜韻</u> 翌日又拈杜登樓韻 <u>任實途中</u> <u>南原歸路登房氏山亭</u> <u>望郊</u> <u>即景拈牧齋詩韻</u> <u>翌日復拈牧齋詩韻</u> 賦竹十二絕 重陽客至 無花無酒 次杜九日藍田崔氏莊韻 <u>夜坐拈牧齋詩韻</u> <u>拈牧齋詩韻 贈姜玉下</u> 曉坐呼韻得涼字 拈杜宿府韻贈趙生 <u>拈杜至日寄北省韻 與齋中諸生共賦</u> <u>鄭嵎堂使君 有和李齊齋侍郎詩 依其韻得二首</u> <u>呈嵎堂</u> 嵎堂枉顧 聯筇往興福寺 邀朴蕉史吳桂南金石庵 <u>拈杜送辛員外韻</u> 翌日拈杜將赴成都韻尹秋湖金碧泉又至 <u>復呼燈字</u> <u>遙和鷺西亭韻</u> <u>與石庵聯筇至家拈門字</u> 唐生壽仁 誦黃梅泉詩 歎其字法精嚴 <u>有懷贈鶴山</u> <u>道中口占</u> 任實途中 與鶴山拈清字 <u>【附】鶴山の 詩</u> <u>翌日拈韻字</u> <u>【附】鶴山の 詩</u> <u>翌日拈韻字</u> <u>【附】鶴山の 詩</u> 翌日拈如字 <u>【附】鶴山の 詩</u> 曉坐有懷欲寄鳳城得紅字 <u>舟溪</u> <u>與鶴山拈簫字</u> <u>逢杞泉拈杜夜韻</u> 與鶴山拈羣字 <u>【附】鶴山の 詩</u> <u>賦雪得灰字</u>	<u>【附】城南坡의 詩</u> <u>【附】石田의 詩</u> <u>【附】鶴山の 詩</u> <u>酬處仁壽余五古三十六韻</u> <u>【附】蘇溪의 오언고시</u> <u>金溝張參奉韶石 有大明紅詩三首 要人轉示于余</u> <u>其中一聯云 三千里外魂猶返 五百年間眼獨明</u> <u>辭致慷慨 音節壯朗 余擬和 久之而竟未得</u> <u>却以三絕句寄謝</u> <u>曉坐拈楊誠齋過楊子江韻</u> 道中記所見 <u>步斜字韻呈白坡宗英</u> <u>【附】白坡의 詩</u> <u>酬崔鶴人見寄詩</u> <u>除日隄村三絕句</u> 元日一壬寅 <u>和李翠亭大奎大夫人六十一壽宴詩韻</u> <u>讀藕亭詩藁 有懷余詩三首 其第一首是對菊</u> <u>其下二首是歲暮 時按韻追和</u> <u>【附】藕亭의 詩</u> <u>【附】藕亭의 詩 二首</u> <u>復追和白坡用前韻詩</u> <u>【附】白坡의 詩</u> 廬生處仁 以其大人華甲之辰 新裝屏風 先期要余作十幅畫 迺寫松竹蓮菊石 配以橘桃梨芝及壺觴 各題五古其傍 因以爲壽其大人之詩 酬崔欽齋敬存行路難之作步其韻 酬欽齋賦荷露擬古之作 聊自拈韻 酬欽齋謹次先正述懷之作步原韻 <u>酬欽齋次觀梅之作步其韻</u> 崔錦圃見顧時 步所與唱酬韻 順呈箕亭矣 今春箕亭枉屈 示其手書所曾和此韻 故聊復次之 <u>【附】箕亭 의詩</u> <u>箕亭贈余六十一壽序 既而又贈五古六首</u> <u>亦壽余也 裝詔殊過情 審其意 實有以勉且戒</u> <u>焉敢不陳諸胸中 遂各就其韻拈和 以謝贈言之惠</u> <u>【附】箕亭 의詩</u> 任實道中紀所見 曾爲蘇溪作十幅畫 仍以十首詩請壽其大人 後逢蘇溪 知其二幅紙備退誤也 遂更寫四幅
---	---

【附】鶴山の詩

與鶴山拈厓字

【附】鶴山の詩

賦雪絕句

哭鄭錦波

與鶴山拈岑字 未賦會姜玉下見訪共敘

雨坐懷海鶴梅泉有賦

【附】鶴山の詩

與鶴山拈丁卯集訪韋隱居韻

題寫意艸龍

欲往鳳城理裝 抵安南久留未發

野行天氣甚

宿野舍

暮抵杏村

除夜

元日-丁酉

人日杏亭書室晤鎮安金芝山

朴晚香書楊 夜晤全蒼崖有賦

晚香書楊 夜會鄭白峰李蕉亭朴雲田白玉岡共賦

白峰蕉亭 遽爾分手 悵然挽雲田共賦

望日登杏亭後山觀月出

廬韶江至拈漁字

雨後睡起拈青字

奎輿來謁拈同字示之

【附】奎輿의 詩

拈許郢州中秋望月韻

拈許郢州思舊游韻

拈許郢州村舍韻

拈杜即事韻效其體

贈白玉岡

和李雲臯二首

拈年字與鶴山共賦

【附】鶴山の詩

拈飛字

廬苕溪至與鶴山共拈杜暮春韻

翌日拈李袁州韻

復拈李袁州宴集韻贈鶴山

與苕溪聯節南行途中口占

拈丁卯集南樓贈朴上舍芸泉

過五院 用杜題省中壁韻

拈丁卯集客至韻

春暮向鳳城 杏社諸君 前一口作餞春會

拈杜曲江韻

使裝屏表裏兩面 蓋外幅爲八 則內幅自爲六也

題畫三十二絕句

題石十二絕句

記喜雨七絕十二首

復得五絕

潯雨懷松石

懷訥人

訥人詩性矯健 積年苦吟 往往有警語 意謂非久

當據古名家一席 比來見舉世不尚詩學

稍稍不經意 余則以詩道雖小亦關人事

固在所自好而已 豈隨時世改其素操哉 殊甚惜之

得近體一首 冀其有省且以自勉

過木蓮洞與琴一鶴山同賦

【附】鶴山の詩

【附】琴一の詩

和朴表園奎晚月季詩

休溪平日 爲詩極其苦吟 調格清楚

比年不肯用力 余甚惜之 意欲一訪

勸其更進一步矣 適先我見顧留話 歷日頗盡繾綣

臨行拈行字共賦

【附】休溪의 詩

酬欽齋見贈之作步其韻

酬欽齋賦砌菊之作

酬欽齋賦庭竹之作

酬欽齋和人之作 聊以自敘

復以一絕句贈欽齋聊述 經時未和之故以謝之

酬石菴見寄五古却賦二篇

九日野步有吟

壽鶴山蒼堂六十一歲 得二十四韻

蘇溪見訪與裕齋(秋江改號)共得齋字

【附】蘇溪의 詩

【附】裕齋의 詩

又賦得何字

【附】蘇溪의 詩

【附】裕齋의 詩

戲爲二十四絕句

走筆寄春岡上舍

賀碧泉上舍蒼堂六十一壽次原韻

曉望

帶方李元瑞冒雪見訪 元瑞即玉樵第二令子

余詩藁中有贈秉龍 元瑞其表字也

携其所作詩示余 求聞其瑕

自杏亭離發 社中諸人 送至洞口 分別口占

至野塘店拈村字

至鰲樹憩朴芸泉丙舍 見庭前紫山紅盛開

翌日又得一絕句

拈濃字

途中記所見五絕句

過白波坊 懷故友安允信二絕句

日昏捨輜徒步至礪岩店

自礪岩店至沙峙二絕句

芸泉書室拈劒南集初夏韻

翌日拈盧員外長安春望韻

峽行用杜題省中壁韻

宿星峙早發

至冷泉書室 拈崔曙九日登仙臺韻

翌日拈司空文明南原韻贈樂祖·海鶴胤

訪小川于土金 聯節至萬壽洞 拈洲字

【附】小川의 詩

【附】梅泉의 詩

翌日復往土金拈章蘇州舟行韻

【附】梅泉의 詩

【附】小川의 詩

拈劒南集石帆夜賦部

【附】小川의 詩

【附】梅泉의 詩

與小川聯節至萬壽洞訪梅泉

*【附】梅泉의 詩 (拈期字)

【附】小川의 詩

【附】梅泉의 詩

擬登鰲山有雨未果

【附】梅泉의 詩

【附】小川의 詩

自土金向金鰲山口號

【附】梅泉의 詩

【附】小川의 詩

鰲山絕頂 石壁如削 前有一小庵 庵前陡絕

大江自南折過山右 儘奇觀也

【附】梅泉의 詩

【附】小川의 詩

翌日又拈局字

【附】梅泉의 詩

【附】小川의 詩

自鰲山還土金路中拈波字

【附】小川의 詩

而所作五言絕句有十許首 俱古雅可諷詠

余甚喜其翩翩有步武 既而又書七言律詩見贈

其氣格 雖遜於五絕 而亦自字從辭順

且有求益之意 顧此衰耗日甚 而相居濶遠

無以相長 殊可怏怏 次其韻略道之如左

【附】小樵의 詩

賀趙鄉長回甲宴

小樵詩藁中 取五絕四首七絕一首 書余詩藁

將就次和之也

夜夢

南溪釣叟二首

牧牛

登山

作全州行 與小樵聯節 途中口占得寒字

【附】小樵의 詩

紀行次小樵見示五絕四首

次小樵見示七絕一首贈之

途中又得時字

【附】小樵의 詩

小樵以前七絕韻口占見贈 聊復和之

【附】小樵의 詩

大雪後朝行四首

送尚潤上人

和小樵山字韻走筆送別

【附】小樵의 詩

至日

松石盛言其書閣雪月之勝 因拈韻共賦

【附】松石의 詩

松石復以前韻 有賦見贈 聊且和之

元日·癸卯

金石庵見顧 留與夜賦時 適有來學于余書室者

與石庵同拈劉隨州詩 得還字

【附】石庵의 詩

葛磻見顧共賦

【附】葛磻의 詩

裕齋夜顧得眠字

步前韻呈嵒堂

小樵至自南原得開字

梧亭見顧得尋字

岐雲至拈得宵字

閑道

夜與諸生拈得局字

【附】梅泉의 詩

題苟安室

【附】梅泉의 詩

王小川見顧于萬壽洞拈香字

【附】小川의 詩

【附】許卯園의 詩

和小川見贈詩還呈

【附】小川의 詩

翌日梅泉次前韻見贈即席和呈

【附】梅泉의 詩

和梅泉見贈二首詩

【附】梅泉의 詩

自萬壽洞離發 許卯園李白村李琴村從之 抵土金

訪小川 尋梅泉亦追至 拈人字

【附】小川의 詩

【附】梅泉의 詩

翌日復拈清字

【附】小川의 詩

【附】梅泉의 詩

又拈藍字

【附】小川의 詩

【附】梅泉의 詩

與梅泉聯筇 向冷泉 蓋不忍遽分也

路中口拈得天字

【附】梅泉의 詩

自冷泉將發 而小川又至留一日

萬壽土金冷泉年少來錢者爲三十餘人

以樂祖書屋窄不能容乃會于里中書齋拈山字

【附】梅泉의 詩

【附】小川의 詩

月谷晤金梅史李錦石拈心字

翌朝將發梅史強挽拈園字

自冷泉向土金路中口拈低字

與杏亭諸生坐石上 拈許郢州泛後池韻

與諸生坐村後樹陰 拈杜送王十五韻

拈杜堂成韻

拈杜至後韻

喜雨次杜春夜喜雨韻

拈杜南鄰韻

雲城社伴至 拈古歡訪李松泉韻

拈杜端午賜衣韻

得重字

翌夜拈得新字

箕亭見枉共賦

【附】箕亭의 詩

蘭香石壽室拈和字

與姜石樵途中口占

訪桂南于大東里書齋 齋主金生 出其詩藁

求聞得失 而詞理俱佳 故詩中及之

相如指桂南也

自東里還路中 與石樵口占 戲爲右丞體

與石樵拈韓舍人詩得茸字

又拈錢校書詩得湄字

又拈即拾遺詩得東字

謾題

與裕齋聯行路中得青字二首

【附】裕齋의 詩

養麗齋拈韻得然字 金秋水詩先成

崔明集家午飯

紀路上所見

路中記兩拗體五言七絕句

還家記兩拗體七言十二絕句

翠亭見顧得還字

【附】翠亭의 詩

【附】裕齋의 詩

養麗齋拈韻得空字

【附】秋水의 詩

【附】一庭의 詩

【附】懶雲의 詩

步前韻得二首

和呈秋水

入夜送懶雲至溪頭 得行字

登道成菴 菴在正覺山中 余詩後成 爲羣彦所促

【附】蒼霞의 詩

【附】秋水의 詩

【附】一庭의 詩

【附】懶雲의 詩

【附】又樵의 詩

【附】白下の 詩

道成之遊 以月軒不至 爲少一之悵 翌日月軒來

會于養麗齋 拈韻得回字

【附】秋水의 詩

【附】月軒의 詩

【附】白下の 詩

【附】懶雲의 詩

又得濃字

社中諸生 分曹較藝 以萬壽香一炷爲限共賦
見諸生較藝 用其韻 記其事
用較藝韻賦卽事

諸生闔天字

再闔橋字

三闔隣字

四闔陰字

地迴

拈岑嘉州和賈舍人韻

拈劉隨州登餘干城韻

拈劉隨州青溪口送人韻

霖雨拈劉隨州喜晴韻

新晴拈劉隨州送字文明府韻

五字句拈杜春日梓州登樓

拈許鄧州遊錢塘李隱居西齋韻

李華雲間余北還 以詩贈之 且云送別 聊和謝之

杏亭林園 常聞萬鳥聲 至初秋猶然

李上舍蕉史 爲余作打魚會 與諸生至石峴前川

登石峴頂

贈別

贈社中諸生

李雲皇暮春贈詩 因在杏亭 無使人未酬

初秋還榔 作二首 要盧茗溪轉呈

嵎堂有詩贈之 因往鳳城未及和 還家拈休字呈之

【附】嵎堂의 詩

嵎堂聞余還自興福寺 貽書要之拈塵字

【附】嵎堂의 詩

時朴蕉史吳桂南金訥菴孫中菴柳碧窩金石菴

俱在坐拈光字 方理裝向任實 嵎堂以書再邀

乘昏至興福寺

訪趙南愚得門字

舟村夜話

【附】訥入의 詩

【附】重巖의 詩

【附】松巖의 詩

拈許鄧州

有賦老妓者 詩人多和之 余亦戲爲

【附】竹軒의 詩

【附】重巖의 詩

金溪村阻雨

途中

龍村逢李晴辰話蕉

【附】一庭의 詩

養麗齋拈得遙字 戲爲織語

戲作拗體

絕句

自道成庵乘昏而下得五絕-追錄

得安字效劍南體

養麗齋與諸彦共賦

養麗齋晤文委員默惺奉贈

默惺以前韻見贈 獎詔過情 聊復謝之

又得霞字

較金參奉龍錫三絕句

路中遇前已而收霽

見玄鳥數十列坐電線

自德川將發 得林字 別養麗齋諸彦

還家時路中爲老炎所困

嵎堂折簡見招 知自京還適來避暑于興福寺也

携一壺酒往見 仍得廬字共試賦

【附】嵎堂의 詩

松石書室逢朴滄園 拈漢山詩得州字

詩藁五

呈四宜堂謝未赴登樓之會

余不喜詠物押強韻 而可儂要次其詠笠

帽眼鏡玉壺觀魚詩 乃強爲賦之

閒行至立川

九日石樵見訪 與裕齋共拈深字

九月懷箕亭

題書訣詳論五古八首

元月二日菴礪見顧與裕齋共賦得春字-甲辰

【附】菴礪의 詩

【附】裕齋의 詩

自完山向南溪口占

謾賦

簡訥入

求禮金秀桂東來 見拈岑嘉州詩得西字

拈王右丞詩得年字 與桂東共賦用拗體

贈桂東

表園書室與趙葵庭趙菴礪趙又儂金九何共賦

又拈翁字

復用前韻

上詩亭 與趙湖亭趙海石趙三坡趙恍雲會葵庭

齋中示諸生 拈劉隨州賦得韻

還家數日李樛孝見訪共賦

白坡見訪拈梅泉詩集得來字

金逸堂見訪夜話

拈劉隨州

金梅史見訪拈

自遣三首

年少時 覽書日十許卷 頗有記性 能領畧其大致

自衰病來 日覽未一二卷 掩卷不能記一二行

乃以丹墨標其綱領 把筆考閱之際 精聚神凝

似有助於記認 遂賦詩識之

茗溪書室 拈得尋字 與金鶴南共賦

翌夜拈梅泉詩藁得運字

新月金斐隱書室 拈劔南集得消字

梧山書室與盧茗溪共賦 戊戌

青鶴山房拈

【附】鶴山의 詩

舟村拈杜夜宴左氏莊

訥人誦前作懷人詩 字虛意實 甚有典型

不覺有感 遂援筆和之

【附】原作

拈李藕船詩卷得居字戲作小品

【附】東湖의 詩

拈四家詩得眺字

【附】訥人의 詩

二月四日 途中遇大風記即事

翌日大雪

拈石洲集得霄字

賦石

梧山逢詩人 李蕉史要余共賦 即席應之二首

可山晤鶴山 拈阮亭詩得稀字

【附】鶴山의 詩

又拈帶經堂集得生字

【附】鶴山의 詩

小川見余所作書畫帖 以絕句六首見贈

余藏之篋衍 適閒居檢書得之 朗然一讀

遂步其韻 蓋各有所指云

【附】小川의 詩

茅屋

賦石

訪石友 拈天字 夏亭桐雲亦在坐

翌日復拈羣字

葛磻又儂九何亦到得歎字

是夜宿三坡書室

養麗齋晤李雲西金石湖 叙舊得形字

與秋水一庭得纖字

用前韻書呈石湖

與秋水一庭拈阮亭詩效其拗體

自德川還家路中

賀石樵上舍 杞泉學士

星齋上舍萱堂六十一歲壽詩

黃谷道中

暑

三坡書室拈韻得初字

翌日得塵字

萬壽聖節 登又蘭亭 與金琴隱趙可依趙南愚共賦

趙醉峯趙海石趙葛磻亦至

謝琴隱

翌日會于三坡書室

是日拈秦字 爲擊鉢之戲 連得二首

二詩皆出倉猝 適以露拙 夜臥復得一首

微擬老杜秋興詩

白坡宗英授徒那塾 不參此會 遙賦秦字

余復和之

趙九誠 趙漢燮 趙紀淑 年未弱冠 能作近體詩

時時有警句 皆願摳衣 至又蘭亭共賦

余嘗作月一社序 社員要余一參社會 難孤其意

遂登又蘭亭共賦

琴隱爲余設詩會于又蘭亭

夜坐與醉峯葛磻九何 拈唐詩七絕 韻得秋開二字

表園書室 寫從吾所好四字扁 屢易之不休

作一絕記之 因示表園

九何約夜至不來

八月十五夜與明國同賦

永贊見顧共賦

作此示君章兼質永贊

永贊要歸再留一宿

田家雜興

葛磻紹依見顧 方拈韻 值其家有事遽歸

早朝行至鈔山望遍野 嵐光如一道長河

黎明行至劍山

【附】石友의 詩

次金參奉豐湖幽居韻

惺夫有書見邀 路中口占

金止齋書室 與梁休溪共賦

【附】休溪의 詩

【附】止齋의 詩

鶴山適至鶴洞 與金久齋同登完山 得青字
題畫蒲陶

詩藁 三

杏亭書室 拈劉隨州青溪口送人韻

拈王右丞春日 與裴迪過新昌里韻

【附】荷洲의 詩

【附】晴史의 詩

【附】梅下의 詩

霖雨

用前韻呈荷洲

拈岑嘉州西掖省即事韻

【附】韋山の 詩

拈嘉州送嚴河南詩韻 呈荷洲

拈嘉州渭西郊行韻 贈韋山

拈高常侍送李少府詩韻 奉別荷洲

【附】晚香의 詩

【附】荷洲의 詩

【附】晴史의 詩

拈劉隨州送侯中丞韻 示宗人青峯及姜玉下

荷洲欲早發 驟雨又至

鶴農上舍病臥 用前韻致意

復用前韻 示諸生

乍晴拈嘉州韻

朝晴 拈王右丞送楊少府韻

【附】青峯의 詩

梅下上舍 送荷洲詞伯 有詩頗佳 近磨土木

不能酬唱 余以詩示之 拈王右丞泛舟韻

【附】梅下詩】

青峰玉下 以余在杏亭開社 爲社長 意欣然

欲入社中 觸暑遠來 至則社主二上舍

或以身病或廢家事 俱不課詩文 殊無意致

居未旬 二生告歸 余帳然有詩贈之

拈隨州送靈徹韻 鶴農上舍病臥多日 未參詩席

聞社中拈韻 要見原軸和一首 詩語頗佳

余復以詩示之步前韻

【附】鶴農詩】

元瑞永贊 先後來會 得冠字共賦

華雲追製余六十一歲壽詩 見寄其藏之中心

歷數歲不忘 盛意洵可感也 依其韻和呈

【附】華雲의 詩

贈別元瑞

石羊洞與朴淡園鄭鶴山夜會

元日立春-乙巳

春祝

大奎見訪拈得雄字共賦

郡中詩社見邀 以病不赴追次其韻

輓梁休溪士云

與諸生共賦 拈柳下詩卷得橫字

夜坐月露甚皎

夜望

酬趙紹農

走筆簡葵庭

觀野

種菊

涼棚

白鷺

拈權石洲詩集得聲字(국역본에 누락)

夜坐

縱目

農樂

待雨

望雲

喜雨

嚼瓜

新涼

新晴

茅齋

得澄字

晒藥

霖雨

玉簪花

九日夜坐謾賦二首

蔦淵書所作詩與九何詩各二首 其一詠盆中竹石

其一詠睡彪 而韻皆生硬 要余和之

合郡詩社 集又蘭亭

拈金滄江詩得川字

復得存字 時永贊見顧

復得巾字謾賦

復得垂字自遣

拈隨州登潤州城樓韻示梅下

閱城南坡詩藁得家字

【附】晴史의 詩

【附】梅下의 詩

南坡詩藁有贈黃梅泉韻 與萼雲共賦

讀姜古權集得成字 贈梅下

【附】萼雲의 詩

朴晚香同郡韓生竹溪之爲人 恬靜好讀書

又風義有動人者 仍要余次其所居書室韻

雨夜有懷口占

明嘉隆間 詩文力主擬古 遂以成弊

識者譏以爲非性情之真

自是性情之說又大行于世 其失反有甚於擬古

迄于今 無起而矯之者 漫賦二絕句 我東文字

與言語不同 工詩文者 往往失於遺辭

有終身迷而不悟者 慨然有賦二首

可山訪鶴山夜話 拈杜晚晴韻贈之

拈劉隨州送楊於陵韻

藻思示諸生

【附】石泉의 詩

翌夜 拈岑嘉州渭西郊行韻 贈石泉

再用前韻自遣 仍示諸生

閒夜

【附】石泉의 詩

重陽拈劉隨州望幸韻自遣

【附】奎興의 詩

翌日拈年字

道中拈長字

疊前韻

又疊前調作俚語

拈離字自遣

荷洲見訪 共至完北簷舍 夜賦得青字

【附】荷洲의 詩

與荷洲同向可山路中 占晴字贈鶴山

【附】荷洲의 詩

可山路中 占遲字 贈同行

夜坐

奎舍與其金來 留弊廬 與家兒奎興 賦詩得家字

又次林字

明日將往可山

送別馬上舍

路中口占

舟村書室

復得耕字作無聊語

復得天字賦呈質亭

復得蒼字賦即事 時金洛基 金石痴見顧

復得頭字與石痴共賦

拈老杜詩得心字 賦贈石痴

拈楊誠齋遇楊子江韻述懷

拈右丞詩得臺字

拈得州字感古

曉望

古意

松雲見顧言懷拈老杜九日藍田韻

白頭吟擬古意

禾馬歌

拈天字與諸生共賦

張顓石寄詩十餘篇 和 久而未就

赴詩社 丙午

黃桐雲見訪

徐生文煥請壽其仲父六十一歲

慶壽堂六十一歲壽帖

題蘭十二絕

可依有興福寺相會之約 冒雨而往

則琴隱南愚醉峯葛磻皆至 得能字

復得腰字

以招驢二韻 誤認致錯 故依元拈更賦

復得空字

復得非字歎老

理燕庭結涼棚記賦五字

過羅池口占

向日游興福寺時 可雲碧雲二生 詩皆有可稱

其家具鴛黍 邀余于穿紅亭 得聽字

自穿紅亭還路中口占

賦熱

七絕

五絕

五律

七律

拈齊字送蘇溪

諸生拈老杜赤甲詩韻 聊作此示之

與諸生拈滄溟詩得攀字

柳秀才英茂來顧共賦

金松友六十一壽詩

赴詩社 是時適有所感之懷 詩興頓減 強而賦

拈劉隨州途皇甫曾韻 拈闌字 【附】松巖의 詩 【附】訥人의 詩 再用前韻 戲作復用前韻 訥人和余昨詩二首 語皆清警 復拈杜送王十四判官韻共賦 【附】訥人의 詩 【附】白坡의 詩 拈杜示阿段韻 【附】松巖의 詩 【附】訥人의 詩 論詩疊前韻 【附】訥人의 詩 蘇進士雲樵 見訪於訥人書室 拈劉隨州後亭泛舟韻 【附】雲樵의 詩 【附】松巖의 詩 【附】訥人의 詩 拈深字 【附】雲樵의 詩 【附】松巖의 詩 【附】訥人의 詩 賦雪拈劉隨州送靈徹韻 拈杜秋興韻 【附】白坡의 詩 【附】松巖의 詩 【附】訥人의 詩 雲樵曾以詩見贈 未及和之 又雲樵約再訪而不來 遂步其韻以敘嚮仰之意 拈劔南集小園賞春韻 【附】松巖의 詩 【附】訥人의 詩 拈杜至日寄兩院韻 【附】松巖의 詩 【附】訥人의 詩 至夜拈劔南集禁江韻 【附】雲樵의 詩 【附】松巖의 詩 【附】竹軒의 詩 【附】訥人의 詩	怡雲見顧得閒字 黃大雅希彥甫六十一歲 其孫□□年方□□求賀其祖壽詩 賦此呈希彥 黃桐雲致貞 六十一歲 置酒邀余 余適以病未赴 聊和其詩呈之-丁未 賀白坡六十一歲 步原拈韻和呈 石痴見訪 與堂中諸生共賦 穿紅亭作詩社會 與諸生拈得天字 時醒菴適還家 與諸生復得招字 時小樵自南原亦至共賦 得聲字賦五言 挽趙可儂 小川遺其詩稿三卷 既而贈以五七古詩三首 余亦以五七古詩酬呈 呈鄭嵎堂 題畫五首 重陽後戲題 與裕齋西樓 拈老杜詩曲江韻 詩社追題-丁未冬 題畫二首 題圈白梅六首 題漬墨梅六首 關有侯書餅詩 桮舍近日世界 異前腐儒虛名 謾和其韻 共三首-戊申 顧炎武作詩自註云 見北史 毛奇齡笑之曰 獨寧人讀北史乎 蓋陋之也 作詩自註 本屬可笑而此爲堂中諸生資業計 故不拘 且作詩押強韻 非徵典不能足其意 不得已則又借其意 其全無所據者 不敢妄作此法 不可不知 題畫十二首 輓升方柳同敦 逍遙亭成 余未一登焉 而社伴要余共吟 及赴則天氣尚有餘寒 乃下園而設席于穿紅亭-己酉 杜陵郭博士 遺以其文藁并寄詩 步其韻追呈 挽趙唐津 自龍臥里夜還 酬金菊痴見贈韻 紫鶴洞書舍餞春-庚戌 次紫洞書舍觀魚韻
---	---

<u>高堂醉宴 詩賀訥人</u> <u>至後一日 拈劍南集題齋壁韻</u> <u>【附】訥人の詩</u> <u>【附】松巖의詩</u>	<u>紫洞學徒請詩題 命以迎夏得陽字</u> 戲賦秧針 挽新月金進士
--	--

이제 『연석산방미정고』와 간본 『석정집』의 문을 표로 대비·고찰한다.

〈표 5〉 『연석산방미정고』와 『석정집』 수록 작품 비교표 (문)

다음 표에서 『석정집』의 굵은 글씨로 된 작품은 필사본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고,
『연석산방문고』의 굵은 글씨로 된 작품은 간본에 없는 것이다.

『석정집』(문)	『연석산방미정고』
卷四 書 答黃雲卿【二】 答王贊之 答李善五 答高壩枉 答李炳瓚【二】 序 燒餘錄序 送李公執選玉山序 送李韋山士吉序 李大奎慈夫人徐氏六十一歲壽序 律隨刊誤精選序 黃梅泉五十壽序 宋君章慈夫人徐氏六十一歲壽序 梁休溪詩藁序 詩學證解序 記 萬卷堂記 申南沙書室記 逸堂記 夏宜軒記 黃梅泉書室記 白坡書室記 遊道成庵記 智石記 種竹記	文藁一 燒餘錄 一 燒餘錄序 <u>與鄭鶴山書</u> <u>與鄭鶴山第二書</u> 里人學匠說 <u>鄭鶴山于稱字說</u> 與鄭鶴山論伯夷傳序 <u>與金令惺夫書</u> 又 金東錫實記 伍子胥論 <u>論管仲請囚</u> <u>論晉文公使人視魏棼病</u> <u>緊諫不入故不競於楚說</u> <u>四皓說</u> 留侯請藉前箸辯 <u>直不疑償金說</u> 禹湯水旱說 <u>論管仲貧困常欺鮑叔</u> 韓信俛出袴下說 <u>論書足以記名姓而已</u> <u>論范睢間步見須賈</u> <u>爲君難論</u> <u>沛公踞牀 使兩女子洗足 而見酈生說</u> <u>大將軍有揖客說</u> <u>陳太丘糜飯說</u> 才學說 <u>伯樂不常有說</u>

箕亭記 小川齋記 友竹堂記 博約齋記 德玉齋記 鶴南齋記 題跋 題張吾園十幅寫意輕色畫後 銘 金氏藏譜石銘 養麗齋銘 箴 識本箴【集三藏序字】 祭文 祭鄭于稱文 卷五 論 論王陽明 夜氣論 伍子胥論 論衛鞅說孝公以王道 歐陽公棄黜新文論 論費禕常裁制姜維 論秦王釋尉遲敬德 論魯肅勸以荊州借劉豫州 富於萬篇貧於一字論 以佚道使民雖勞不怨論 論孔光削藁 文學止於潤身論 論聞更鼓知善政 韓世忠論 心之精微口不能言論 與世推移論 論申公 論蔡澤 魯仲連論 范增論 嚴固不可愛亦不可論	陳遺焦飯說 論蕭何爲吏錄錄未有奇節 魯不棄周禮說 言之無文行而不遠說 釋楚以爲外懼說 論秦穆公素服郊次 論卻克報怒于齊 晉悼公使魏絳佐新軍贊并序 心競力爭公室拿卑說 竹友齋唱和詩卷序 論成王定鼎卜世三十卜年七百 天道遠人道邇說 民受天地之中以生說 論小國無文德而有武功 論晉文公有喜而憂 論鄭子皮既授子產政又以家事聽 論衛多君子未有患也 文苑二 儒者博而寡要辨 漢文帝不相竇廣國說 衛公子殺晉鄙說 信陵君未肯見處卿說 張耳陳餘倍戾說 太史公願爲晏子執鞭說 沛公欲留秦宮說 後說 張良不受封齊說 下令如流水之源解 謝朓錦樵書 答朴錦樵書 陸賈侯公說項王不同說 擬侯公說項王 宋義項羽論兵不同說 漢文帝不用賈誼說 讀樂毅報燕惠王書 讀淮陰侯傳 漢武帝釋汲黯矯制之罪說 讀伯夷傳 演貧也非病也說 季札逃位私疑 陳平僞聽呂后說 兒寬儋貨帶經說 石慶爲相九歲無所匡言說
---	--

刑賞天下之刑賞論	<u>馮驩焚券說</u>
論委任以責成功	<u>恕說</u>
集衆思論	<u>嗜魚故不受魚說</u>
福善禍淫論	<u>鄭子產作丘賦說</u>
王霸論	<u>書諸家文英後</u>
論俗士豈識時務	<u>讀汪堯峯文</u>
卷六	<u>答黃梅泉書</u>
說	<u>附梅泉來書</u>
窮理說	答王贊之
理象說	<u>答許卯園書</u>
理象取譬說	答李善五
理氣說【四】	文苑三
太極說	福善禍淫論
太極動靜說	王霸論上
理有動靜說	<u>青鶴山記</u>
太極動靜體用說	<u>【附】青鶴山記-鶴山</u>
體用說	<u>記鄭鶴山于稱與余 論詩文說</u>
以太極爲體動靜爲用其言有病說	<u>季布論</u>
理一分殊說	<u>士屈於不知己伸於知己說</u>
學而時習之不亦說乎說	<u>毛遂論</u>
關關雎鳩在河之洲說	<u>黃帝習用干戈論</u>
曰若稽古帝堯說	<u>卑之母甚高論說</u>
乾元亨利貞說	<u>袁盎不好學論</u>
里人學匠說	<u>蘇亭記</u>
張良不受封齊說	<u>與黃梅泉書</u>
三餘說	論衛鞅說孝公以王道
釋字說	<u>子貢聞一知二論</u>
種蕉說	<u>與李雲臺書</u>
麗澤說	<u>論卓茂與馬 與直不疑償金 同異</u>
用力多者收功遠說	金氏藏譜石銘并序
宰天下說	<u>賀許卯園男序</u>
漢文帝不用賈誼說	歐陽公棄黜新文論
演貧也非病也說	三餘論
才學說	<u>宓子不許刈麥論</u>
魯不棄周禮說	<u>論陳元龍自上大牀臥</u>
禹湯水旱說	<u>論穰苴請使莊賈監軍</u>
天道遠人道邇說	<u>論司馬懿上表請戰</u>
韓信俛出袴下說	論費緯常裁制美維
卷七	<u>論陸抗服羊祜所與成藥</u>
雜著	<u>論房玄齡以度支有關 求其人未得 乃自領之</u>
	論秦王釋尉遲敬德
	論俗士豈識時務
	<u>論諸葛武侯 不許魏延 異道會潼關</u>

原識 春王正月解 讀古文解 讀唐荊川文 讀歸震川文 讀汪堯峰文 讀方望溪文 讀歐陽六一文 讀蘇東坡文 讀韓昌黎文 古文解 文辨 堯不誅四凶辨 留侯請藉前箸辨 辨惑 亦將有以利五國乎辨疑 金東錫甲午實記 與鄭于稱論伯夷傳序 盧處仁【天壽】卜新宅文 非靜無以成學 擬侯公說項王 策問【朱子策試諸主之間】三 書金石田然灝屏 題四宜堂【鄭嵎堂精舍】	<u>論唐太宗吞蝗</u> <u>論漢光武以人上章示馮異</u> <u>我自樂此不爲疲說</u> <u>論有志者事竟成</u> <u>論周札贈諡</u> <u>衆人當惜分陰說</u> 魯肅勸以荊州借劉豫州 <u>論漢武帝好用酷吏 吏民益輕犯法</u> <u>論民者弱而不可勝 愚而不可欺</u> <u>論張安世聞有詔令 乃驚使吏之丞相府問焉</u> <u>明主可爲忠言論</u> 文藁四 <u>玉壺齋記</u> 鶴南齋記 <u>好書室後記</u> 萬卷堂記 申南沙書室記 <u>隆師楔序</u> <u>興學約規序</u> 送李士吉序 律髓刊誤精選序 <u>感梅軒詩贊并序</u> 題張吾園十幅寫意輕色畫 <u>寫蘭小話</u> <u>書張東土屏嶂</u> <u>與黃梅泉書</u> 答高塘柱 <u>與鄭鶴山書</u> <u>答鄭鶴山書</u> <u>本論</u> 富於萬篇 貧於一字論 <u>漢文帝論</u> <u>禮養論</u> 堯不誅四凶辨 <u>論太史公敘圯上老人事</u> <u>敬壽石亭先生六十一歲序-梅泉 黃珪</u> <u>七壽文-鶴山 鄭寅驥 于稱</u> 文藁五 <u>送李錦石序</u> <u>敬壽石亭先生六十一歲序-錦石</u> 李翠亭大奎萱堂六十一壽序 養麗齋銘-并序
---	---

	<u>書崔眞亭壽余六十一序後因呈眞亭</u> <u>【附】敬壽石亭先生六十一歲序-眞亭</u> <u>協義社序</u> 遊道成庵記 <u>書歐陽公序梅聖俞詩集後</u> 夏宜軒記 釋字說 <u>均之二策寧許以負秦曲說</u> <u>論蒯徹說韓信背漢而三分天下</u> <u>與李元瑞論詩說</u> <u>月一詩社序</u> 答黃梅泉 古文解 詩學證解序 <u>孝信約規序</u> <u>汲黯治官擇丞史 而任之責 大指而已-課堂中諸生</u> <u>魏相爲揚州刺史</u> <u>考按郡國守相</u> <u>多所貶退丙吉予書曰</u> <u>願慎事自重相心善</u> <u>其言爲齊威嚴</u> <u>石慶爲齊相 不言而齊國大治</u> 以佚道使民 雖勞不怨論 夜氣論(국역본에 누락되어 있음) 朱子策試諸生之間 論王陽明 <u>文薈六</u> <u>儒有不寶金玉而忠信以爲寶</u> 黃梅泉五十壽序 <u>論曹參答子窋-課同塾諸生</u> <u>豫讓論</u> <u>論蕭何對以知臣莫如主</u> <u>逸堂記</u> <u>魯有兩生論</u> <u>論張良誤中副車</u> <u>論鉤距</u> 論孔光削藁 <u>天下事不如此如此必壞說</u> <u>論寇準請眞宗親征契丹</u> <u>但民稱便即是良吏說</u> 文學止於潤身論 <u>不可學他不是論</u> <u>要須純意於國事論</u> <u>論恩若已出怨將誰歸</u>
--	--

	<u>志不在溫飽說</u> <u>論瑞應推而勿居</u> <u>論且傳養望歲久不渝</u> <u>才器論</u> <u>論治天下如治家非大壞不更造</u> 論聞更鼓知善政 論韓世忠 杜門謝客絕口 不言兵 心之精微 口不能言論 <u>論狄青用兵主勝不求奇功</u> 宋裕齋君章萱堂六十一歲壽序 種蕉說 麗澤說 <u>論沛公默然良久</u> 論申公 與世推移論 <u>較文藝說示諸生</u> <u>氣水說</u> <u>公孫弘論</u> <u>商鞅論</u> 論蔡澤 魯仲連論 <u>田橫論</u> <u>論令數下民不知所從</u> 范增論 <u>時時從漢王說</u> <u>文薦七</u> 文辨 原識 <u>趙葛礪友誠大人六十一歲壽序</u> <u>王小川六十一歲壽序</u> <u>論日者傳</u> 梁休溪詩藁序 盧大卿卜新宅文 <u>石田書室記</u> 祭鄭于稱文 <u>黃大雅希溫六十一世壽詩序</u> <u>壽黃桐雲六十一歲序</u> <u>寧可以馬上治天下論</u> <u>各自以爲親己論</u> 嚴固不可愛亦不可論 <u>三人如推車子論</u> <u>論上前爭事</u> 刑賞天下之刑賞論
--	---

	<u>爲文章必本於仁義論</u> <u>勤不言苦說</u> 用力多者收功遠說 <u>非大壞不更造論</u> <u>先憂後樂說</u> 論委任以責成功 <u>論陳平答陸賈曰生揣我何念</u> 宰天下論 <u>田叔論</u> <u>韓信不薦李左車論</u> <u>賀崔箕亭君明甫六十一歲序</u> <u>王小川詩稿序</u> 集衆思論 非靜無以成學 <u>黃鶴阜門生楔序</u> <u>白坡宗英六十一歲壽序</u> <u>文弱論</u> <u>獨觀其大略論</u> 黃梅泉書室記 <u>長枕軒記 并序</u> 讀古文解 讀唐荊川文 讀震川文 讀堯峰文 讀望溪文 讀六一文 讀東坡文 讀昌黎文 智石記 <u>止石記</u> 種竹記 白坡書室記 辨惑 <u>文薈八</u> 箕亭記 小川齋記 友竹堂記 學而時習之不亦悅乎說 亦將有以利吾國乎辨疑 <u>在明明德說</u> <u>天命之謂性說</u> 曰若稽古帝堯說 關關雎鳩 在河之洲說
--	--

	乾元亨利貞說 春王正月解 <u>[附]歷代先儒正朔時月異同說</u> 德玉齋記 博約齋記 <u>送李君希瑞歸南原序</u> <u>月稷序</u> 文藁九 <u>寒暄小品 并序</u> 思 訊 絃 賀 慰 餽 乞 請 勉 謝思 謝訊 謝賀 謝慰 謝饋 謝乞 謝請 謝勉 燕石山房文藁 別集 燕石山房文藁別集一 <u>新舊折衷末篇 倍根學說</u> <u>詩經日課 齊一之八</u> 燕石山房文藁別集二 窮理說 理象說 理象取醫說 理氣說 第一 理氣說 第二 理氣說 第三 理氣說 第四 太極說 太極動靜說 理有動靜說
--	--

	太極動靜體用說 體用說 以太極爲體 動靜爲用 其言有病說 理一分殊說 答黃雲卿 識本箴-集三藏序字 <u>答黃石田</u> 題四宜堂-鄭嵎堂精舍 答李惺湖 答李惺湖 <u>答黃雲卿</u> <u>【附】梅泉書</u> <u>答黃梅泉</u> <u>題畫</u> <u>「논어」에 대한 물음</u> <u>答黃梅泉</u> <u>題所書三家帖贈盧生處仁</u> 書金石田屏 五畫詩祝李惺堂時衡其大人壽筵 <u>鏡餘錄</u> <u>異遊錄</u> <u>安和雅集序</u> <u>四人同行記</u> <u>留鰲山記</u> <u>舟峙店舍滯雨記</u> <u>遊萬壽洞記</u> <u>其二</u> <u>宿土金記</u> <u>與王小川問答記</u> <u>之冷泉記</u> <u>遊華嚴寺記</u> <u>其二</u> <u>重留冷泉記</u> <u>與海鶴論文記</u> <u>與白村留錦成店記</u> 送李玉樵還玉山序 <u>書黃梅泉文鈔後</u> <u>傳家錄</u> <u>燕石山房未定文藁內集 傳家錄</u> <u>先府君遺詩零錄</u>
--	--

	燕石山房別集未定藁 (고려대 옥당문고) 갑본 표제: 『舊範新論』 을본 표제: 『燕石山房別集 上』 (『論新民』편 더 있음)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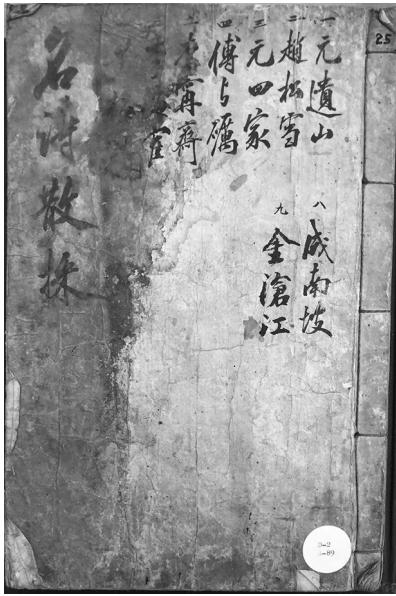
IV. 석정 이정직 편 시문선집

앞의 2장에서 석정 이정직의 단행 저술들을 별집(기타 저술)으로 목록화하였는데, 실제 알려지지 않은 이정직의 편서들은 더 많이 있다. 이들 편서에는 이정직의 주해, 평설없이 단순히 작품 원문만 선하여 필사한 자료도 있고, 중국 작품에 대한 석정의 간략한 해석이 추가된 것도 있고, 또 석정이 동시기의 벗들의 시문을 선집한 것 등이 있다. 이들 자료는 석정의 문학취향 및 문학으로 서로 허여한 당대 대표적 문인들의 시문을 볼 수 있기에 석정의 저작 못지않게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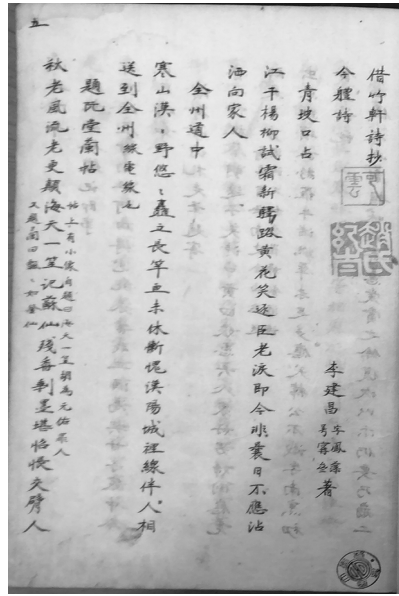
필자가 금번 새로 발굴한 자료 중 하나인 『名詩散採』라는 시선집은 이정직 지인 5인의 시선집이다.

고려대 소장의 필사본 1책으로 내용은 中國人詩(원 원호문, 조맹부, 청 원매 등) - 借竹軒詩抄(李建昌) - 留還堂詩抄(李沂) - 淡翠山房詩抄(黃玹) - 佩芳齋詩抄(成蕙永) - 雲山韶護堂詩抄(金澤榮)¹³⁾로 구성되어 있다. 석정의 친필로 추정된다. 이 자료

13) 김택영의 추가 시문 자료로는 『湖嶺巾衍』 金澤榮 著, 1878년(고종 15) 이후,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일사古811.03-G426h) 1책(21장)도 있다. 金澤榮(1850~1927)이 1878년 이상동과 함께 三南 일대를 유람할 때 지은 시를 모은 詩稿이다. 저자는 이때 약 60여일간 3천리를 걸으며 견문을 넓히고 사회현실을 체감하였다. 저자는 1872년 평양과 금강산을 유람한 바 있는데, 이 책에 실린 작품을 비롯한 저자의 초기 한시에는 憂國의 정서와 民生에 대한 관심이 짙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작품수는 75제 100수이다. 이 중 일부는 저자의 문집인 『韶護堂集』 詩集 권2의 「戊寅稿」에 수록되었는데, 「무인고」에 수록된 작품이 47제 59수에 불과하니, 이 책에 실린 저자의 시 중 상당수가 누락되었음을 알 수 있다. 역사와 지리에 대한 주석이 자세하여, 韓末 憂國詩人으로 알려진 저자의 관심을 엿볼 수 있다. 이 외 창강 시문 관련 신자료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1891년, 임규영 편, 『운산소호당집』, 필사본 1책, 국립중앙도서관. 1907년, 『창강시선·창강문선』, 필사본 2권, 남경도서관. 1908년, 李禎 編, 『한국김창강집선』, 연활자본(한목림서국) 2권1책, 연세대, 1911년~1925년, 6차례의 시문집, 趙鵬 編 『김창강시문휘초』(『南通報』 '文藝欄' 게재 시문).



〈그림 9〉『명산채』 표지(고려대)



〈그림 10〉『명산채』 본문(고려대)

는 매우 중요해서 사실상 석정의 대표선집으로 볼 수도 있는데, 석정의 시에 원매의 『소청산방집』을 읽고 쓴 시도 있고 여기에 수록된 동시기 조선작가 5명은 석정과 모두 긴밀한 교유관계를 갖고 있는 문인들이다. 석정과 매전은 일찍 교유가 시작되었는데 1890년대 중반에 석정이 쓴 「黃梅泉書室記」는 둘의 깊은 관계를 볼 수 있는 중요한 글이다. 황현은 석정의 환갑인 1901년에 壽序와 壽詩를 보내왔고,¹⁴⁾ 석정은 그 수시에 차운을 한 「和黃梅泉壽余五古十首 梅泉以海內存知己天涯若比隣分韻故因步其韻」시를 보내기도 하였다. 성혜영은 고향이 경남 하동으로 구례의 황현과 매우 절친한 사이여서, 이를 매개로 석정과도 교유가 이어졌다.¹⁵⁾ 『석정집』 권3에는 성혜영의 시집을 보고 쓴 시 「閱成南坡詩藁得家字」가 들어있다.¹⁶⁾ 이진창은 전라도로

14) 이 수서는 『매전집』에 보이지 않는데, 『석정집』의 제일 앞에 김영환의 「석정집서」 이진방의 「서」에 이어 「서」라는 제목으로만 실려 있다. 얼핏보면, 『석정집』에 대한 서로 오인하기 쉬우나, 실은 석정에 대한 수서이다.

15) 성혜영의 시문집이 희소한데다가 개인소장본(개인 A: 2종, 개인 B: 1종, 개인 C: 1종)이어서 아직 연구가 전무하다.

1차 유배시에 석정을 한번 대면한 적도 있고, 편지의 왕래도 몇 차례 있었다. 석정은 이견창의 시와 문을 애호하여 작품을 뽑은 바 있다. 석정은 이견창 사후에 그 동생 이견방과도 서신 왕래를 이어갔다. 김택영과 석정은 대면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지만, 석정의 시집을 김택영이 산정했다는 기록이 있고, 또 남통 망명지에서 김택영은 석정의 글씨를 판각하고자 하기도 하였다.¹⁷⁾ 이기와 석정은 1880년대 초 교유를 시작하여 석정은 1892년 「해학시문집서」를 써 준 바가 있고 이후에도 그의 시와 문을 각각 선해놓기도 하였다. 이기는 1905년 을사조약 직후 대한자강회 및 호남학회 등을 결성하여 활발한 애국계몽 활동을 하였고, 이는 석정 이정직에도 큰 영향을 주었던 것으로 보인다. 『호남학보』 창간호에 이기는 양계초를 소개하여 「양씨학설」(1908)로 실었는 바, 석정의 「구범신문」과의 관련도 고려해 봄직하다.

또한 이정직은 중국 및 우리나라 저명 시문을 뽑아 ‘종장’이란 표제로 일종의 시리 즈물을 만들었다. 즉, 『근대종장』(필사본 1책, 명청 문, 왕세정 귀유광 방포 등), 『해동종장』(필사본 1책, 연세대, 김택영 이기 문), 『시가종장』(필사본 1책, 전남대), 『제가종장』(필사본 1책, 개인소장 이견창 이기) 등이 있다. 『근대종장』, 『해동종장』, 『명시산채』 등은 이정직의 저술은 아니지만 석정이 선한 중국 및 우리나라 사람들의 시문을 모은 매우 중요한 선집이고, 이 외에 석정의 별집 저작으로 알려진 것들은 『소시주선』, 『성당정음』, 『제가지남』, 『척독이지』 등이 있다. 이 저작들은 앞서 2장에서 송기면이 언급한 이정직 별도 저술 도표에 포함되지 않는 편서들이다.

이상에서 이정직이 직접 선하고 필사한 몇몇 중요 자료들을 소개하였는데, 이와 아울러 향후 이정직의 흠어진 시문 작품의 輯逸이 필요하겠다. 필자가 찾은 몇 가지 자료만 우선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鳳城詩話』 경술년(1910) 필사본 1책. 매천, 소천, 이산 해학, 석정 한시 수록 大韓隆熙三年曆 뒷면에 필사.
- 『天下比隣集』 융희3년(1909) 필사본 1책. 매천의 친구 등과 주고받은 편지들을 동생인 황원이 편집. 매천이 서신을 주고받은 사람들은 寧齋 李建昌, 耕齋 李建昇, 丹農 李建初, 滄江 金澤榮, 茂亭 鄭萬朝, 荷亭 呂圭亨, 保堂 徐炳

16) 「閔成南坡詩藁得家字」千峰秀色故人家, 烟柳風槐一路斜. 夏日樓清鳴白雨, 夕陽天朗放丹霞. 共修蠟屐行林外, 時把漁竿坐水涯. 漠漠翠杭連巷陌, 鸞翎如雪起平沙.

17) 전계, 박철상. 1912년 김택영 편지.

洙, 石亭 李定稷, 海鶴 李沂, 錦士 朴恒來 등임.

- 『尺牘撮要』 융희3년(1909) 필사본 1책. 매천 친구들과 주고받은 편지들을 수록. 이 尺牘集에 언급된 사람들은 금사 박항래, 매천, 鳳溪 高庸周, 小川 王師瓚, 石亭 李定稷, 二山 柳濟陽 등임.
- 『簡牘』(梅泉簡牘) 필사본 1책. 梅泉이 石亭 李定稷, 滄江 金澤榮, 二山 柳濟陽에게 보낸 간찰을 수록함.
- 『國朝詩選』(미상) 필사본 1책. 川社 王錫輔, 梅泉, 海鶴 李沂, 小川 王師瓚, 南坡 成蕙永, 兼山 白樂倫, 悔堂 李聖烈, 石亭 李定稷 등의 한시 수록. 속표지에 ‘東國律詩五七言合選’이라 표시되어 있음.
- 이상 5종 성균관대 존경각(2018년 입수 자료)
- 『鳳城雜詠』 필사본 1책(보성 남평문씨 소장). 봉성은 구례의 옛 이름이다. 1904년을 전후한 황현, 왕사찬, 윤종균, 이정직 등의 시와 서로의 批點을 수록함.
- 『東詩近選』, 필사본 1책. 연세대.
- 『留還堂文藁』(이기 저), 필사본 1책. 연세대
- 『海東宗匠』(김택영, 이기 산문), 필사본 1책(64장). 연세대
- 『매천 황현과 매천집』(2006 강운 최승효 기증문화재), 순천대학교 박물관 도록에 황현과 석정 이정직이 지은 연작시 한 수가 소개되어 있음(苟安室會作, p10).
- 『문목채편』에 이정직 관련 기록 5조목.
 1. 도록에 실려 있는 구안실회작 전문과 번역문(문목채편 상권-45~49면)
 2. 황매천 관계 인사의 詩로 이정직의 題(문목채편 하권-53면)
 3. 황매천 관계 인사의 서간에서 柳二山이 王師瓚에게 보낸 편지에서 황현과 이정직의 필력에 대한 칭찬이 보임(문목채편 하권-190~191면)
 4. 황매천 관계 인사의 서간에서 이정직이 王師瓚에게 보낸 편지 3통이 보임(문목채편 하권-218~221면)
 5. 황매천 관계 인사의 文에서 이정직이 지은 왕사찬 시고 서문이 보임(문목채편 하권-264~267면)

「海鶴詩文集序」는 이정직이 1892년에 써준 것으로 직후에 추기가 보태졌다.

V. 결론

본고는 석정 이정직의 문집, 저술, 필사 자료 등을 발굴하고 총망라하여 정리한 것이다. 2장에서는 필사본 『연석산방미정고』(후손가장본) 외에 고려대 육당문고본 등을 추가 발굴하여 그 안에 실린 「구범신론」(=「신구절충」)의 실체를 소개하고, 아울러 이 글이 제자 송기면의 『유재집』에 잘못 편입되어 있음을 밝히게 되었다. 3장에서는 필사본 『연석산방미정고』와 간본 『석정집』에 수록된 시문을 대조하여 수록의 유무, 제목의 異同 등을 적시하였다. 필사본에서 간본에 선택·수록된 시문은 절반 가량인데 「구범신론」 같은 잡저류는 일체 신지 않았다. 4장에서는 이정직의 별집 외에 한·중 시문을 編選, 轉寫한 ‘종장’ 시리즈 및 『명시산채』 같은 중요 자료를 발굴하고, 해당 작가와 이정직과의 관계 양상을 언급하였다. 아울러 散在된 이정직 시문의 輯逸이 필요함을 몇몇 작품을 제시하여 강조하였다. 자료의 수집·확충을 통해 이정직의 문학과 사상이 보다 적실하게 재평가되기를 기대한다.

참고문헌

- 이정직, 『연석산방미정고』, 후손가장본(20책), 고려대 육당문고본(2책), 연세대본(1책)
_____, 『석정집』 (1923년 연활자본) 6권3책, 성균관대 존경각 소장본
_____, 『이석정시문초』(영남대, 필사본 1책)
_____, 『명시산채』 (고려대, 필사본 1책)
김제문화원, 『석정이정직유고』(전4책), 2001
이기, 『이해학유서』, 한국문집총간 347집
송기면, 『유재집』, (1959년 석인본) 7권4책, 성균관대 존경각 소장본
송기면 · 박완식 역, 『유재집』, 이회문화사, 2000
최승효 편, 『黃梅泉 및 關聯人士 文墨萃編』(上, 下, 원문), 미래문화사, 1985
『매천 황현과 매천집』(2006 강운 최승효 기증문화재), 순천대박물관
한국고전번역원, 『이해학유서』, 『매천집』, 『소호당집』
한국서예문화연구회, 『石亭 李定稷』(한국서예사료집 2), 2004
- 국립전주박물관, 『선비, 전북 서화계를 이끌다: 석정 이정직』, 2019
구사회, 『근대계몽기 석정 이정직의 문예이론 연구』, 태학사, 2013
양계초, 『음빙실문집』, 국립중앙도서관
- 구사회, 「석정 이정직 연구의 현황과 전망」, 『문화와 융합』 42, 2016
기태완, 「매천 황현과 석정 이정직의 문학논쟁」, 『한문학보』, 13, 2005
김상기, 「이해학의 생애와 사상에 대하여」, 『아세아학보』 1
김영진, 「창강 김택영 관련 자취를 찾아서-2016년 7월 南通 방문 조사기」, 우리한문학회 반교어문학회 공동주최 창강서거90주년기념학술대회 발표문
김진균, 「근대계몽기 해학(海鶴) 이기(李沂)의 한문 인식」, 『泮橋語文研究』 32, 반교어문학회, 2012
- 김태선, 「석정 이정직 시문학의 연구」,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4
김효경, 「이정직의 간찰서식집 『尺牘易知』」, 『문헌과해석』 33, 문헌과해석사, 2005
박종홍, 「이정직의 칸트 연구」, 『박종홍전집』 5, 1980
박철상, 「『동관지록』을 통해 본 조선후기 간찰투식집 고찰」, 『대동한문학』 36, 대동한문학회
오종일, 「실학사상의 근대적 전이-석정 이정직의 경우」, 『한국학보』 35, 일지사, 1984
유순영, 「李定稷의 <石亭佳墨>과 石印本 <芥子園畫傳>」, 『포럼 · 그림과 책 2011 논문집(1)』, 황봉박물관
최영성, 「석정이정직유고 해제」, 2001

_____, 「석정 이정직의 학문과 사상, 그리고 예술-존고정신을 중심으로」, 전북사학, 33, 2008
한영규, 「김택영의 초기 기행시집 湖嶺巾衍錄 연구」, 『韓國漢文學研究』 79, 한국한문학회,
2020

A Comparative Philological Research between the Manuscript 『Yeonseoksanbangmijunggo』 and a Published Edition of 『Seokjeongjip』

Kim, Young-jin

This article is divided into two parts: the one is a comparative philological research between the manuscript 『Yeonseoksanbangmijunggo』 and a published edition of 『Seokjeongjip』 by Seokjeong Lee Jung-jik (1841~1910). The manuscript contains 1,279 Chinese poems and 273 proses, while the published edition contains 512 Chinese poems and 123 proses. So the selection rate from manuscript to a published edition is about half. However the 『Seokjeongjip』 did not adopt “Essays” at all. The other is to conduct additional excavation of poems, essays, and compilation of Seokjeong Lee Jung-jik and to collect scattered and lost materials. During the current data survey, it was confirmed that the manuscript of 『Yeonseoksanbangmijunggo』 was much larger than the current quality. Also the newly discovered manuscript of 『Yeonseoksanbangmijunggo』 in YukdangMungo of Korea University was incorrectly incorporated into 『YuJaejip』 by Songgi-myeon, a disciple of Seokjeong. The essays of Lee Jung-jik is mostly included 「Mang-un 1,2」 at 『YuJaejip』. We need to collect scattered data in the future.

Key Words : Seokjeong Lee Jung-jik , 『Yeonseoksanbangmijunggo』, 『Seokjeongjip』, 『Yeonseoksanbangmijunggo』 in YukdangMungo of Korea University